



THE OCEAN PROVIDENCE

the first
20 years

해양섭리비전
초기20년

목차



PLANNING COMMITTEE

481 8th Avenue, G21
New York, NY 10001
Tel (212) 736-3925
Fax (212) 736-5559

1994년 해양설리
20주년기념기획위원회
481 8th Avenue, Box G21
New York, NY 10001

제작위원회
사토 타테오, 후랭크 죠콜, 카렌 쟈드 스미스
디자인 : 아벨 그래픽스/조나단 걸레리

I. 해양섭리	5	B. 해양교회	35
A. 해양교회:		1. 해양교회의 설립	35
배움의 장소와		2. 오션 찰렌지	36
신앙의 장소	6	3. 해양교회의	
오션 찰렌지:		지방활동	
청소년 및			45
지도자 훈련	7	C. 해양교회 - 일본	54
미국, 세계의 장래를		1. 낚시관광	54
위한 비전	8	2. 해양 낚시클럽	56
		D. 해양관계사업	58
B. 해양 기업들:		1. 조선	58
세계의 식량문제를		2. 상업낚시	67
해결할 수 있는		3. 전세보트	73
능력과 기술	8	4. 투나수출	75
II. 해양섭리 역사	11	5. 가공업	78
III. 사진으로 본 해양섭리 활동	16	6. 도매업	82
A. 문목사의 낚시	16	7. 소매업/레스토랑	85
1. 글로스터/		8. 활어 프로젝트	89
프로빈스타운	16	9. 양식업	92
2. 뉴욕/뉴저지	18	10. 미끼, 낚시도구와 수리	93
3. 알래스카	23		
4. 캘리포니아	28		
5. 워싱턴/오리건	29		
6. 플로리다	30		
7. 앨러배마	31		
8. 하와이	32		
9. 대한민국	33		
10. 캐나다	34		
11. 호주	34		
		IV.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95



해양섭리

병든 세계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임을 우리 각자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성서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예수는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질문이 반복될 때마다 더욱 불안해진 베드로는 <물론입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때마다 예수는 <내 양을 먹이라>고 간곡히 권고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천명은 2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문목사는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는 문목사 내외가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목사 내외는 미래 세대들이 오늘날처럼 굶주림과 기아에 직면하지 않도록 필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자는 지난 20년간 문목사의 해양 활동과 그의 현신적 노력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짧은 것이기는 하나 바다에 대한 문목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바다의 웅장한 힘과 아름다움, 풍요, 심오한 일생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능력, 세계인의 식량자원으로써의 잠재력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뮤어줄 수 있기에 문목사는 바다를 사랑한다.

문목사는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이는 것>이지만, 낚시법을 가르치면 일생을 먹이는 것>이라는 옛 교훈을 자주 인용한다. 그는 바다에서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통스런 개인적 노력을 통해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그의 이상을 실천으로 옮겼다. 이 개인적 레벨에서부터 문목사는 국가적, 세계적 레벨로 활동을 확대했다.

오늘날까지 문목사는 그가 말하는 <해양 섭리>에 관해 사람들을 교육하고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노력의 결과 오늘날 방대한 기반이 형성됐다. 그러나 아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실제적 비전을 발견하고 이에 개인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내 양을 먹이라>는 부모의 소망이 실현될 날이 좀더 가까이다가오고 있다. 향후 20년내에 인류가 어느 자리에 서있을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세계의 미래 개발에 동참하자는 시대의 소명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¹

A. 해양 교회 : 세계인을 먹이는 핵심

해양 교회 : 배움의 장소와 신앙의 장소

바다가 배움의 장소인 교실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장소인 성당임을 깨달은 문목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바다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미래의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 인류를 위해해양 교회를 만들었다”

신앙의 장소

“나는 해양교회가 낚시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운동이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졸업생들은 신학을 공부했으며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특별학교에 입학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박사를 위한 집중코스입니다.”³

문목사는 바다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통해 바다가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올리는 장소임을 알고 있다. 그는 또한 젊은이들은 바다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바다는 그들의 창조주와 그의 위대한 창조를 외면하지 않은채 그처럼 다이나믹하고 흥분되고 로맨틱한 환경이며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열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곳이다.

가장 간절한 기도는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위험에 처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약함을 절감한 사람들에 의해 드려지고 있다. 이들은 영혼의 힘이란 영적 육적 요소의 조화를 통해 개발된다는 것을 배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이, 대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보고, 깊이 경이를 느낍니다.”
---시편 107장 23절, 24절

배움의 장소

문목사는 투나낚시를 통해서 초창기에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 10월 그는 교육과 훈련을 위해 해양교회를 조직했다. 낚시를 하고 배를 관리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 협력과 대화의 값진 교훈을 주며, 자신의 결의를 다지고 인내심을 개발할 좋은 기회를 준다. 1981년에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에서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이 첫 해양 도전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미국의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여러 해변도시들에 있는 해양 교회 센터들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문목사는 강한 해양 진출 전통을 세우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실로 바다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의 진지함은 그가 바다에서 오랜 시간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서 옛볼수 있으며, 또 이 일에 대해 문목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다음의 말에 나타나 있다.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희망과 욕망을 갖는다면 해양교회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모든 희망을 잃어도 나의 마음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언제든 해양교회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⁴

오션 챌린지: 청소년 및 지도자 지도자 훈련

나는 상당한 시간을, 값진 시간들을 바다에서 보낸다. 그것은 내가 미래에 대해 이같은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⁵

누가 미래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 염려하는 문목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을 위하여 살고 세계를 위하여 살고 개인이 희생되더라도 미래세계를 위해 살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오늘 날까지도 그는 우리가 바다를 통해 미래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 그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바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상속받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 바다로부터 미래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미래를 위하고 있습니다.”⁶

“세계의 미래 경제, 세계의 식량문제, 인류의 생존문제는 바다에 의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의 배우는 시간이 인류의 내일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⁷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이처럼 진지한 견해를 갖고 있는 문목사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대양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그리고 있다. <해양 도전>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떤 분야에서건 챔피온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듯이 이것은 문목사의 젊은이 교육의 주제이다.

“챔피온이 되는 사람은 심지어 한번에 24시간 일 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⁸

챔피온이 되는 것은 항상 영광만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성공과

승리의 요체는 훈련과 책임의 완수이다.

“여러분은 모든 세세한 것에 극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규율하지 못하면 대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서의 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⁹

문목사에게 있어 챔피온이 되는 것은 완전한 투입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목사는 <해양 도전>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기준을 위해 노력하고 각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왜 이처럼 챔피온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까. 문목사는 젊은이들을 훌륭한 지도자, 시민으로 훈련시켜 이들이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나보다도 더욱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이 나라를 하나님에게로 돌려와야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책임을 지도록 훈련시킬 작정입니다.”¹⁰

문목사는 자신의 엄청난 비전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처럼 멀리 볼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미래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노력을 인도하는 비전이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과정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비밀입니다.”¹¹

이 발달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다. 문목사는 바다에서의 트레이닝을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마도 이 해양 훈련의 한가지 본질적
요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다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자주
경험하게 해 준다. 작은 모터
보우트안에서 각자의 행동과 의견이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실히 깨닫는다. 더우기 바다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결정, 행동과 서로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통감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고려에 넣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항상 왜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다음에 해야 할 것에 관해 항상
생각하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모두
동시에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법들을 오랜 동안 매우 진지하게
생각했으며, 이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결코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회를 잃을
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¹²

미국, 세계의 장래를 위한 비전

건강한 개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상호의존성은 극히
본질적이다. 그래서 문목사는 해양교회
멤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해양교회
커뮤니티의 성장과 발전은 지역 도시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며, 결국 이것은
미국 전체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미국이
진정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 "세계는 현재
미쳐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거나 기껏해야 자신의 국가을
위해 일합니다. 누가 진정 전체 세계를

생각하고 세계를 위해 일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인 이기심입니다. 누가 미국의
청년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회의원들이 신경을 쓱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순수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에게 도달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분의 상원의원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진정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¹³

그래서 문목사는 미국의 젊은이
교육과 세계에 대한 실천적 노력의
결합에 진지하다.

B. 해양 기업들. 세계의 식량을 해결할수 있는 능력과 기술

수년간 문목사의 비전에 고무되어
통일교회 내의 개인들이 해양자원을
교육용 및 식품으로 이용하는 세계적
제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다.
낚시에서 배 건조, 물고기 소매,
레스토랑, 새로운 물고기 제품의 개발
등에 이르는 광범한 해양 기업들을
발달시킴으로써 비전은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활동들은
모든 종류의 씨푸드 제품의 처리, 취급,
배포등에 관한 지식, 기술,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세계적인 해양
설립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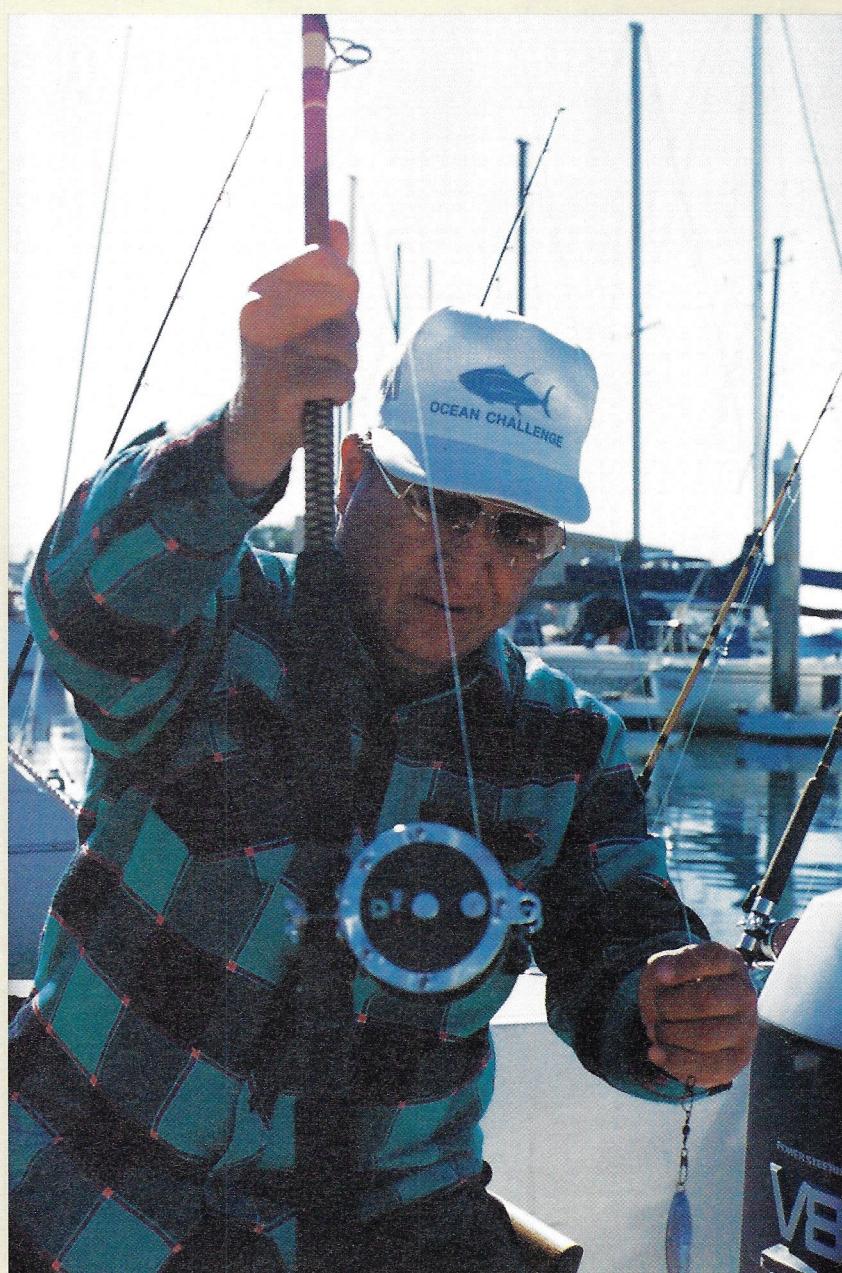
해양설립은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경감시킬 것이 분명하다.

지난 1980년 문목사는 세계의 기아문제
해결을 돋기 위해 수산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관해 말한바 있다.
"나는 냉장 저장이 필요없는 마른
물고기 파우더를 제조하는 선진 기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더는
일사의 요리에서 밀가루와 전분의
과다사용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사료도 바다에서 생산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가공된 해초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야생 물고기를 잡는데
그치지 않고 물고기를 양식할
것입니다.”¹⁴

문목사는 오늘날까지

해양자원으로부터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전세계 사람들을 미국에 초청해
지식,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의
활동들은 모두 오직 한 목적, 즉
하나님과 인류의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를 영, 육으로 생육시킴으로써
덜어드리고자 함이다.



해양섭리 역사

- 1973 뉴욕주 태리타운의 교회 하우스가 수리되고 있을 당시, 문목사는 허드슨 강에서 고기잡이를 시도했다.
그곳에서 잡힌 고기는 대부분 작은 고기들이었다. 커네티컷 지역에서는 더큰 고기들이 잡힌다는 소식을 들은 문목사는 렌트한 배를 타고 그곳에 갔다. 그는 늦게까지 프리포트와 롱 아일랜드 바깥바다에서 많은 블루피쉬와 상어, 풋볼 크기의 투나를 잡았다.
- 1974 두 척의 배를 구입해 플라잉 피닉스와 뉴 호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고기잡이는 6월부터 8월까지 계속됐다. 플라잉 피닉스호는 허드슨 강에서의 고기잡이에서도 사용됐다.
문목사가 롱 아일랜드와 뉴저지 해안에서 작은 투나들을 잡는데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자 그곳의 사람들은 문목사에게 매사추세츠주의 글로스터에서 낚시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문목사는 그곳에 가서 투나 낚시에 도전했다. 이 해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이 초기시절에 문목사는 향후 20년안에 해양 섭리를 확립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했다.
- 1975 글로스터에서의 첫 낚시 시즌은 매우 어려웠다. 첫 21일 동안 문목사는 16마리의 고기를 놓쳤다. 22일째 되던 날, 문목사는 첫 투나를 낚아올렸다.
이 낚시 시기에 뉴 호프호는 다른 어느 배들보다도 일찍 출항했으며 다른 어느 배들보다도 오래 투나잡는 해역에 남아있었다. 만약 어떤 배가 아침에 뉴 호프호보다 먼저 출항하려 하면 다음 날 뉴 호프호는 그 배보다 더욱 일찍 출항했다. 문목사는 바다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결코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윽고 문목사는 기록적으로 많은 점보 대서양 블루핀 투나를 잡아 유명해졌다. 이 지역의 모든 낚시꾼들은 모두 문목사와 뉴호프호에 관해 알고 있었다.
많은 낚시꾼들이 뉴 호프호에 매우 가깝게 접근해 문목사의 낚시 방법을 연구했다.
- 1976-8월 문목사는 교회 사업체들에 대서양 블루핀 투나를 살 것을 권고했다.
- 1976-10월 앨러배마 마스터 마린 조선소와 버지니아 노폭의 부두를 매입하다.
- 1976-11월 I.O.E. (국제 대양 사업)이 박보희씨를 초대 사장으로 창설 되었다.
- 1976-1977 뉴욕지역 통일교회 멤버들에 의해 수산 사업이 개척됐다.
미국인2명과 일본인 10명이 할렘에서 물고기 소매점을 개업했으며, 일식 레스토랑들에 물고기를 도매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이것이 나중에 1978년에 뉴욕 피쉬하우스가 됐다.)

1978	<p>골든 게이트 시푸드와 인터내셔널 시푸드 알래스카를 매입하다.</p> <p>글로스터에서는 랍스터(바다 가재) 비즈니스가 시작됐으며 처음으로 일본에 랍스터가 수송됐다.</p> <p>미국정부는 해안선에서 2백마일까지의 바다와 해저지반에 미국의 상업적 권리를 확장하는 2백 마일 독점경제해역을 선포했다.</p> <p>앨리배마의 인터내셔널 해양 엔터프라이즈사는 새우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걸프지역에서 상업적 어로를 시작했다.</p>
1979	<p>많은 통일교회 멤버들이 전국적으로 자신들의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시작하다.</p>
1980	<p>일본인 기업가들이 미국인들에게 시푸드를 건강 식품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중 일부는 불과 1백달러로 시작했다. 휴양센터로 모닝 가든을 구입하다.</p> <p>인터내셔널 시푸드사가 글로스터에서 선박 정박장과 레스토랑을 매입하다. (9월)</p> <p>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에서 제 1회 <세계 투나 토너먼트>가 열리다. 기업들의 기부금 덕분에 상금은 총 1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지역의 많은 낚시꾼들이 대회에 참가하다. 뉴호프호가 1등을 차지해 6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 금액은 글루스터 지역 어부 자녀들을 위해 장학 기금으로 기부되었다. 그러나 시는 이를 거부했으며 이 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아프리카 기금에 회사됐다.</p> <p>문목사가 1980년 10월 1일 해양 교회(오션 처치)를 발족시키다.</p> <p>마스터 마린사에 의해 뉴욕 이스트 씬 빌딩 조선소에서 <Good Go> 시리즈 배들이 건조됐다.</p>
1981	<p><굿 고> 배들은 3개월 동안 하루 한 척의 속도로 건조됐다. 최초의 해양 도전은 1981년에 시작됐다. 이 당시 글루스터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시작됐다. 통일교회 멤버들은 돌과 계란 세례를 받았으며 자동차 브레이크선이 끊기고, 랍스터 폰드 레스토랑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신문들은 악의에 찬 기사들을 실었다.</p> <p><바다로 나가는 전통>이 수립되다.</p>
1982	<p>문목사를 방문하는 가운데 투나 구매에 관여했던 사업관계자들은 투나 구입가를 파운드당 3달러로 인상할 것을 종용받았다. 당시의 투나 가격은 파운드당 1달러 50센트였다. 그러나 문목사는 어부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고 싶어했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촉구했다.</p> <p>이것은 고기잡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목사의 바램의 표현이었다.</p>
1983	<p>문목사는 해양 섭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의 통일교회 멤버들을 미국에 오도록 초청했다. 7월에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미국에서 낚시 경험을 갖고 훈련을 받기 위해 프로빈스타운으로 갔다. 통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기들이 잡혔으며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p>

- 1983-9월 문목사는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낚시를 시작했다. 미국을 방문한 교수, 학자, 그외의 저명인사들은 이곳의 아름다움과 낚시 경험에 매료됐다. 코디악에서의 낚시는 전통으로 계속됐다.
11월에 일본 사업가들은 문화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교육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해양교회 센터 지도자들과 함께 <버디 시스템>을 개발했다.
문목사는 알래스카에서 연어, 헐리벗의 상업적 낚시를 장려했다. 오션 호프 1,2,3호의 선장들은 이 배들을 코디악으로 갖고오기 이전에 배 건조를 마치도록 돋기 위해 처음으로 바유 라바트르로 갔다.
- 1984-7월 문목사가 댄버리 교도소에 가다. 미국정부는 교회구좌가 문목사 개인 돈이라고 결정, 예금이자 7천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목사를 투옥했다.
- 1985-8월 문목사가 댄버리에서 나와 즉시 글로스터에 왔다. 그는 바다에 나가 9백10 파운드의 투나를 낚았다. 이 투나는 해피월드를 위해 투나구입선으로 사용되던 <Golden Sea>에 보내졌다.
레스토랑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5천개의 레스토랑으로 확대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개발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1986년 전국적으로 레스토랑 1백개가 운영되는 데까지 이르렀다.)
- 1986 <샤이닝 오션>사는 가니미(모조 게살)를 수퍼마켓과 레스토랑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코디악 시푸드 컴퍼니는 전 미국에 알래스카 시푸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 1987 마스터 마린 앤더슨에서 만든 85피트 길이의 파이버글래스 배 <One Ocean>이 알래스카로 항해하다.
뉴저지 시푸드 단지(현재 뉴욕 피쉬하우스의 홈)와 로스앤젤레스 시푸드 공장을 매입하다.
- 1988 문목사는 해양설리의 발전을 평가하고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에서 국내 해양설리의 제 2의 출발을 선언했다.
52 피트 길이의 파이버글래스 낚시배를 건조하기 위해 앤더슨 마스터 마린에서 새로운 플랜이 만들어지다.
- 1989-1월 통합된 I.O.E. 그룹의 기치아래 비즈니스들간의 상호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플랜이 만들어지다. 제2대 사장으로 최 주찬씨가 취임하다.
- 1989-4월 문목사가 허드슨강에서 줄무늬 도미, 통아일랜드 사운드에서 블랙피쉬, 프리포트 통아일랜드와 뉴저지 샌디후크에서 풀룩(가자미류) 낚시를 시작하다. 이는 해양교회의 후원하에 연례활동이 되었다.

10일 -- 코디악 및 알래스카의 다른 지역에서 물고기의 커팅과 품질관리를 하며 7년간 경험을 쌓은 43명의 일본인 여성들이 수산 비즈니스를 세계적 레벨로 확대시키고 해양자원의 잠재력에 관해 현지인들을 교육하기 위해 43개국에 파송된다.

- 1989-12월 최초의 <퍼스트 호프> 배가 완성되다. 문목사는 매우 폭풍이 심한 날씨에 바다로 출항해 멕시코만의 매우 광포한 파도속에 8시간 동안 배를 탔다. 당시 문목사는 해양교회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30개의 해양교회 센터의 강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관해 말씀했다.
- 1990 <월드 오션>사가 활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이 프로젝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부터 요리를 위해 필요할 때까지 산채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물고기 양식에 사용되는 기술과 매우 가깝다.
- 일본으로부터의 낚시 여행이 시작된다. 일본 통일교회에 의해 36척의 <원 호프>배가 주문된다.
- 최초의 활어 레스토랑인 <덴카이>가 오픈하다.
- 문목사가 벨베디아에서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교회: 육지와 바다>란 제목으로 말씀하다.
- 하와이에 배와 정박장을 갖춘 낚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플랜이 만들어지다.
- 1991 <퍼스트 호프 2>와 <퍼스트 호프 3>(52피트 낚시배)가 앤더래마의 마스터 마린에 의해 완성돼 <월드 오션>사와 미국 <해피월드>에 소속돼 운항을 시작하다.
- 1992 <Ocean Peace>가 운항을 시작하다. (250 피트 공장/트롤러) 박 상권씨가 제3대 I.O.E. 사장으로 취임하다.
- 1993-1994 I.O.E. 컨설팅 그룹이 해양설비 지원을 위해 비즈니스와 상업활동 지원에 두드러진 역할을 맡다.

사진으로 본 해양섭리 활동



A. 문목사의 낚시



1. 글로스터 / 프로빈스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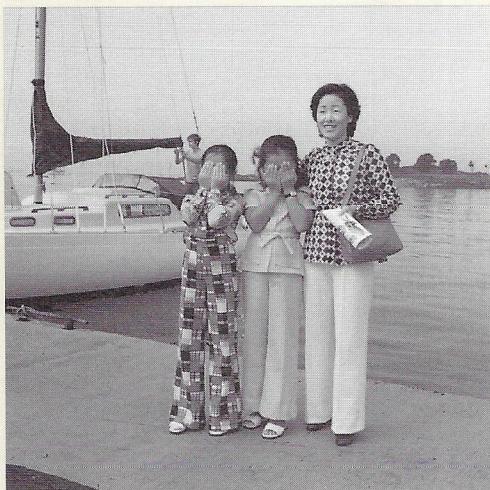
문목사는 최초의 제자의 한 사람인 김목사는 다음과 같이 문목사의 낚시에 관해 묘사하고 있다.

"문목사는 종교지도자이다. 그가 낚시를 한다는 사실은 종교지도자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듯이 보인다. 일부 종교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평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목사의 낚시는 1천 파운드의 투나를 낚는 그런 것이다. 이처럼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작은 물고기를 잡는다면 우리는 동물을 죽인다는 인상을 갖지 않으며, 그다지 크게 느끼지도 않는다. 그러나 투나일 경우, 우리는 동물을 죽인다는 것을 매우 실감하게 된다. 종교지도자가 이같은 일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문목사가 낚시를 할 때면 그의 의식 혹은 목적은 항상 매우 분명하다. 그는 항상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때 그는 정말 세계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문목사는 투나를 잡아 얻은 돈을 써서 인류를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있다."^{ms}

아래 왼쪽 : 두 따님이 1974년 글로스터에서 문목사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 문목사 내외 및 자녀, 스텔 및 게스트들이 글로스터에서 <뉴 호프> 배옆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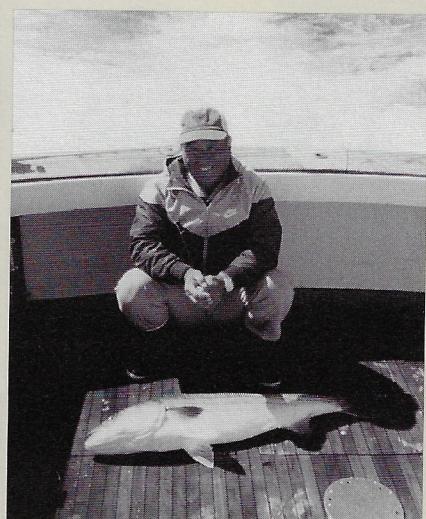




위: <뉴 호프>호에 박보희, 폴 버너, 마틴 포터씨와 함께 탄 문목사.

왼쪽: 1990년 <뉴 호프>호가 오션 챌렌지에서 고기잡았다.

아래: 문목사가 1981년 프로빈스타운에서 줄무늬 도미(농어의 일종)을 잡고 있다.



2. New York/New Jers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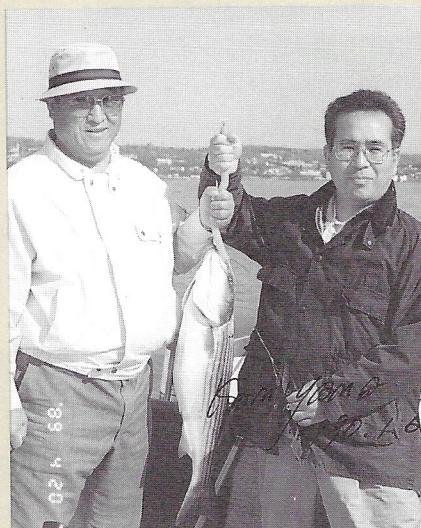
왼쪽: 1989년에 문목사는 헤드슨강에서 줄무늬 도미 낚시를 트레이닝으로서 시작했는데, 그후 이는 미동북부지역에서 낚시 시즌을 시작하는 연례 프로그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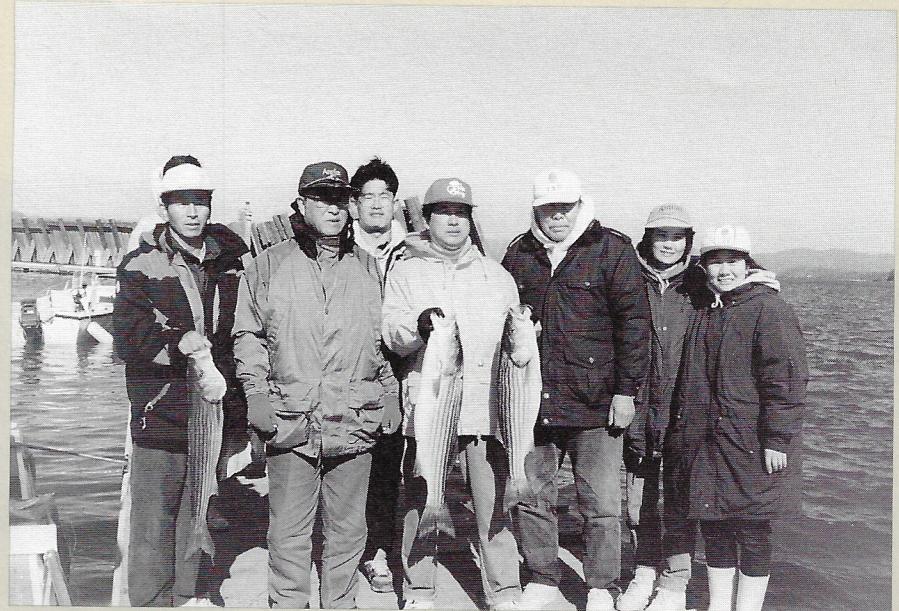
중앙 왼쪽: 1989년 문목사가 첫번째로 잡은 대형 줄무늬 도미.

중앙 오른쪽: 1991년 문목사와 함께한 줄무늬 도미 낚시.

아래 왼쪽: 1992년 문목사와의 줄무늬 도미 낚시. 사진은 그해 잡힌 가장 큰 물고기이다.

아래 오른쪽: 문목사가 그날 잡힌 가장 큰 물고기를 부인 한학자 여사에 보여주고 있다. (1992년)





위 왼쪽: 문목사와 자녀 및 손자들(1992)

위 오른쪽: 1994년 줄무늬 도미 낚시 기간동안 훈련된 7백명의 게스트들의 일부와 문목사.

아래 왼쪽: 1993년 잡은 가장 큰 물고기와 기념촬영한 문목사.

아래 오른쪽: 1993년 문목사와의 줄무늬 도미 낚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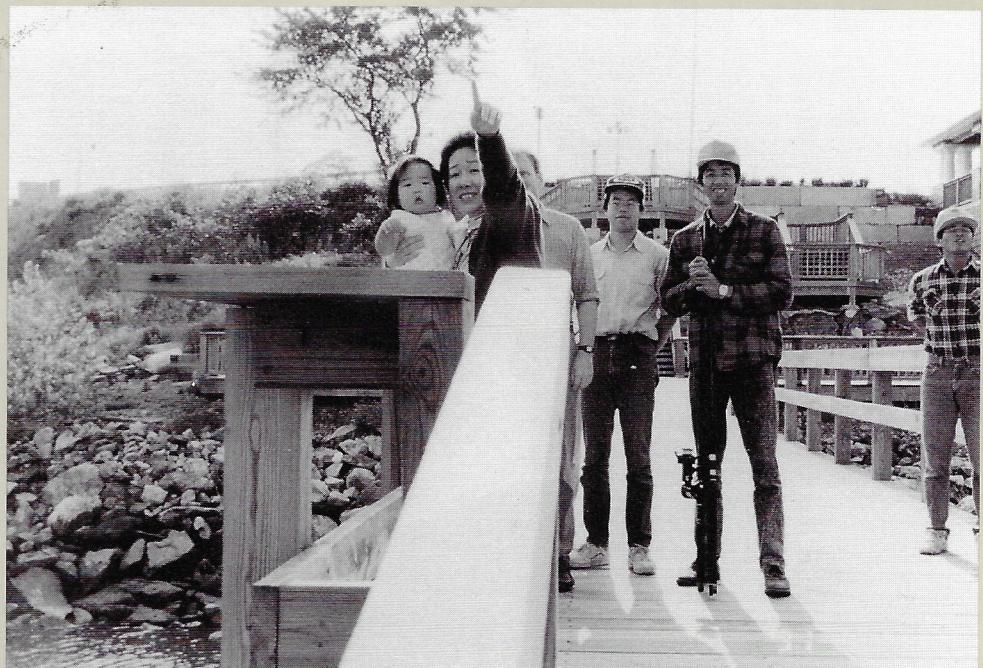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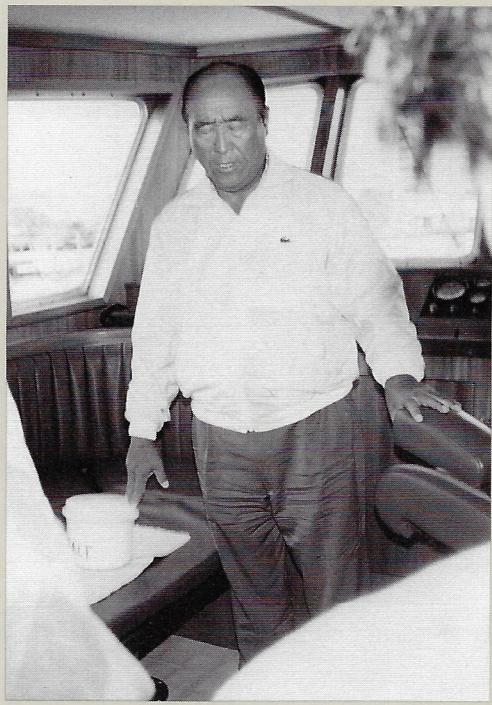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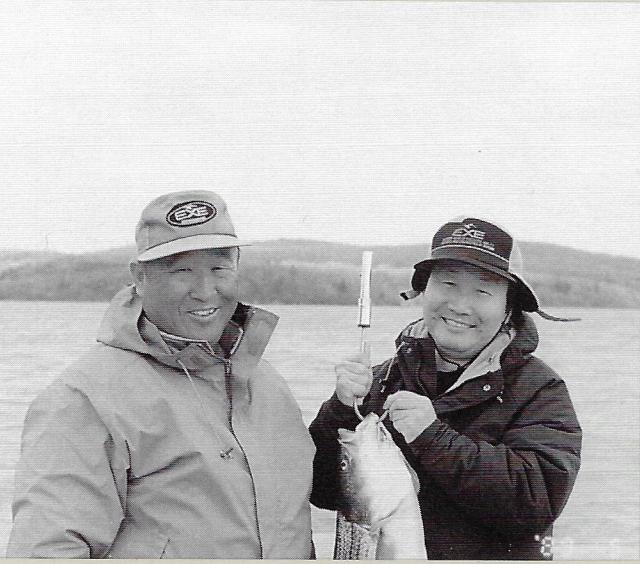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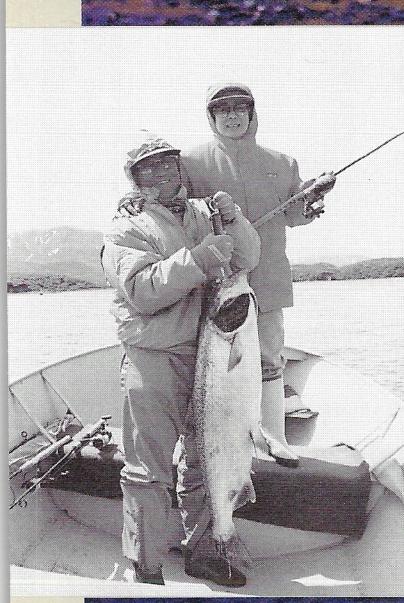
위: 문목사가 1988년 뉴욕주 몬탁에서 줄무늬 도미 낚시를 하고 있다.

맞은편 위: 1990년 뉴욕주 몬탁 앞바다에서 <퍼스트 호프 1>호를 타고 작은 블루핀 낚시를 하고 있다.

맞은편 아래 왼쪽: 문목사가 1990년 6월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서 <퍼스트 호프 2>호를 성별하고 있다.

맞은편 아래 오른쪽: 문목사가 1990년 해프 문 베이에서 줄무늬 도미 낚시를 떠날 때, 손녀들과 함께 한 한학자 여사가 배웅하고 있다.





맞은편 큰 사진: 1981년 알래스카의 아메리칸 강에서 실버 연어잡이를 하고 있는 문목사와 부인 한학자 여사.

맞은편 위: 한학자 여사는 1991년 6월 칼룩 강에서 가장 큰 연어를 잡았다.

맞은편 중앙: 문목사 내외가 1989년 9월 27일 알래스카 버스킨 강에서 연어낚시를 하고 있다.

맞은편 아래: 한학자 여사가 1992년 7월에 치그닉에서 잡은 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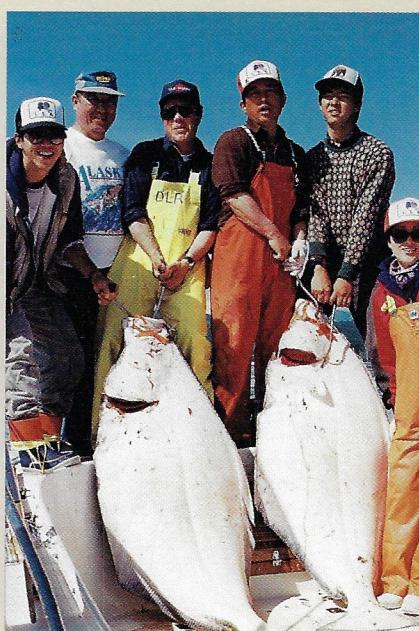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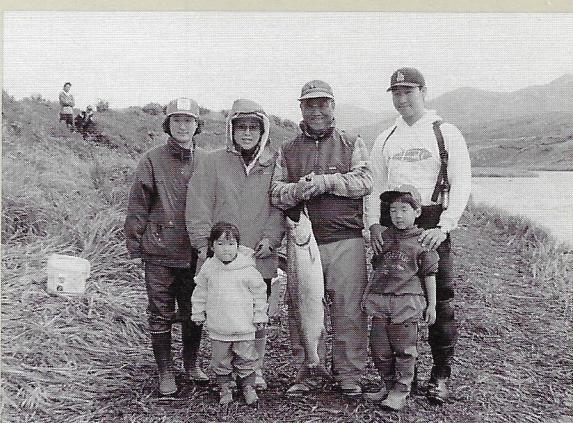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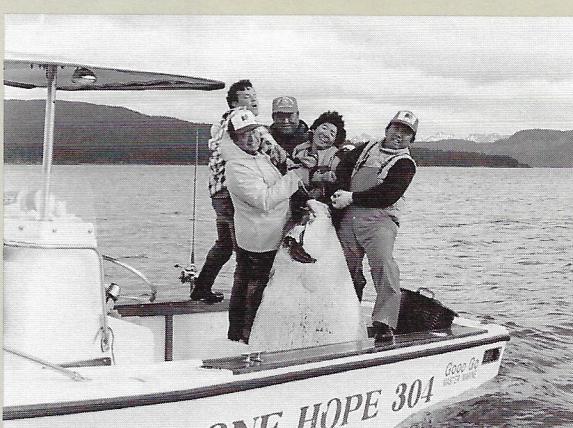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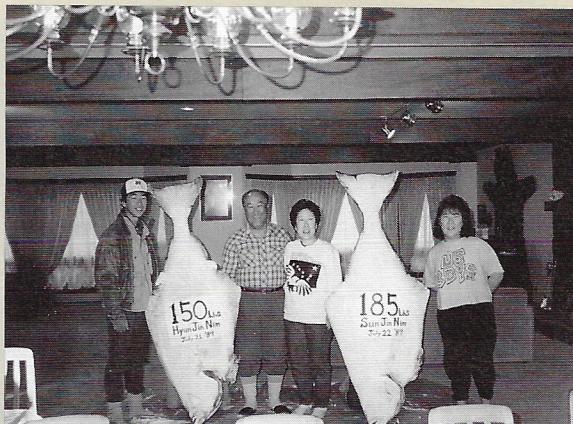
위: 1989년 7월 문목사의 자녀들이 잡은 1백85 파운드 광어와 1백50 파운드 광어.

오른쪽: 1986년 알래스카에서 2백6 파운드 짜리 넙치를 잡은 문목사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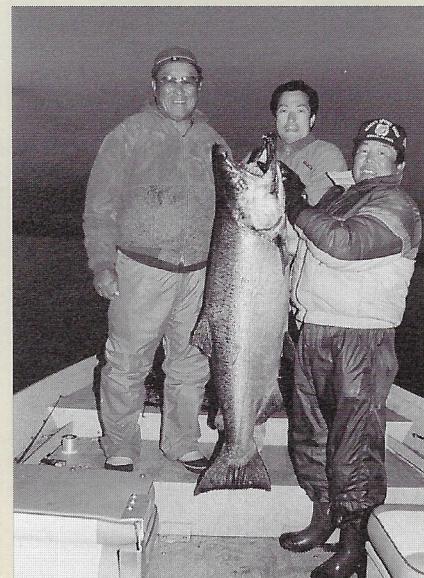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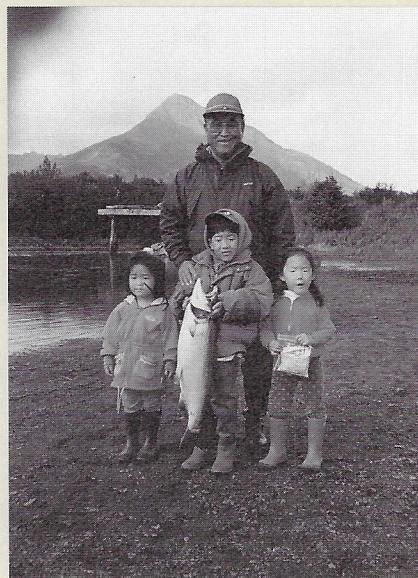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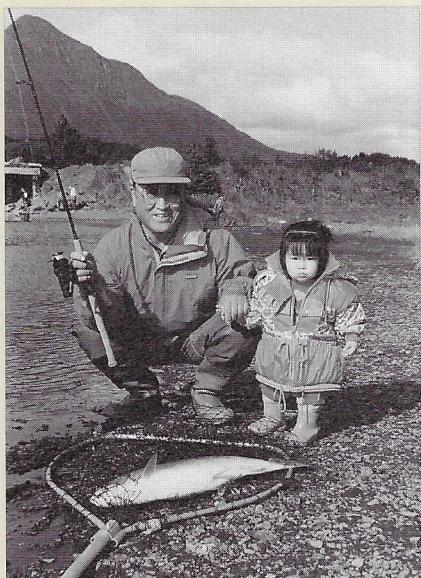
오른쪽 아래: 문목사의 자녀들이 손자들과 함께 1993년 6월 칼룩 강에서 킹 연어 낚시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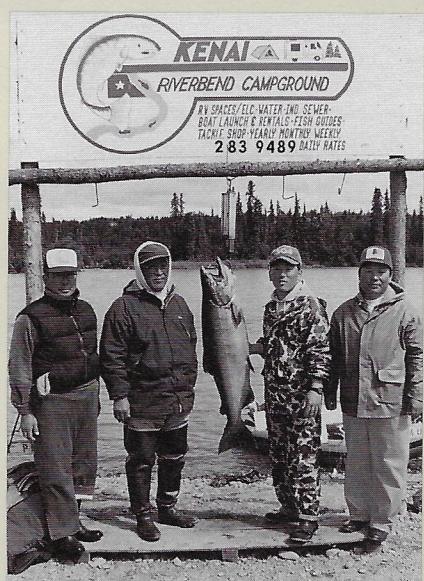
아래 왼쪽: 문목사의 두 자녀가 1986년 알래스카에서 광어 낚시를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문목사 내외가 1991년 6월 칼룩 강에서 첫번째 킹 연어를 낚았다.



오른쪽: 문목사 내외와 장남 가족이 1991년 9월 커다란 문어를 잡았다.
아래 왼쪽: 문목사와 손자가 1991년 버스킨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아래 중앙: 1993년 버스킨 강에서 손자손녀들과 함께 실버 언어 낚시를 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문목사가 1993년 6월 24일 케나이 강에서 70파운드가 나가는 가장 큰 킹 언어를 잡았다.





위: 문목사가 1987년 6월
한국교수들을 일주일간
트레이닝시키고 있는 모습.
가운데 왼쪽 위: 문목사가
1986년 8월 알래스카 코디액
웨일 아일랜드에서 1백73
파운드짜리 광어를 잡았다.
가운데 오른쪽 위: 한국
교수들이 1987년 7월 잡은
물고기와 함께.
가운데 아래 왼쪽: 문목사가
1991년 7월 케나이 강에서 킹
연어를 잡고 있다. 1993년 칼록
가에서
가운데 아래 오른쪽: 일본
사업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광어와 연어 낚시를 마치고,
워크샵의 주제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1만번 살아날 수
있다>는 <반소센메이>였다.
아래 왼쪽: 1993년 8월 바다에서
킹 연어 낚시를 하며 일본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
아래 오른쪽: 5년반 동안
<알래스카 정신>과 기술을 배운
43명의 일본 여성들이 세계로
알래스카 정신과 그들의 지식을
펼치기 위해 1989년 4월 마지막
교육을 받았다.



위: 5년반 동안 <알래스카 정신>과
기술을 익힌 43명의 여성들이 이
정신과 기술을 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1989년 4월 최종 교육을
받았다.

가운데: 문목사가 1989년 8월 31일
트레이닝 프로그램중
<팔정식>선언을 기념하고 있다.

아래: 참부모님이 1991년 7월
알래스카 더치 하비에서 전인류를
위해 베링해를 낚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왼쪽 위: 일본 교회지도자들을 위해 1993년 6월 알래스카 코디액에서 개최된 트레이닝 워크샵.

오른쪽 위: 1993년 8월 알래스카 코디액에서 첫 일본 여성 지도자 연례 워크샵이 열렸다.

가운데: 1993년 7월 한국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해양 훈련.

아래: 전세계에서 모인 통일교회 선교사 트레이닝이 1993년 8월 개최됐다.

4. California



위: 40일간의 낚시 기간중 두번째 낚시장소인 샌프란시스코. 킹 연어를 낚고 있다.

아래: 40일간의 낚시 기간중 최초의 낚시장소인 로스엔젤레스에서 1988년 11월 고기를 잡고 있다.

5. Washington/Ore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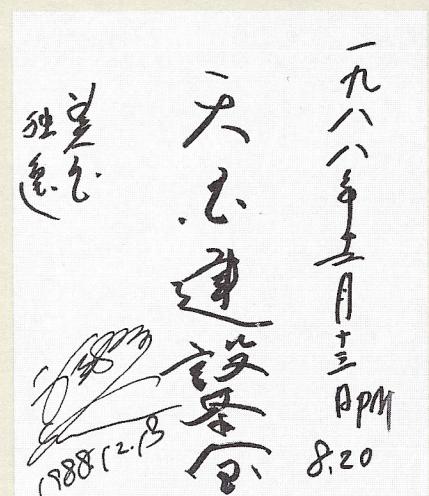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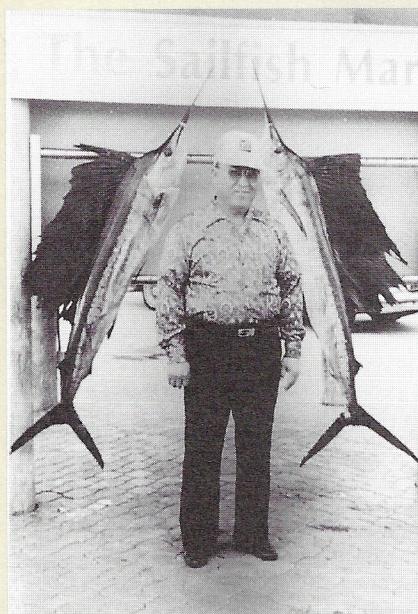


위: 1988년 11월 캘럼비아 강에서의
칠갑상어를 낚고 있다.

왼쪽: 문목사 내외가 1988년 11월
캘럼비아 강에서 잡은 칠갑상어와
함께.



6. 플로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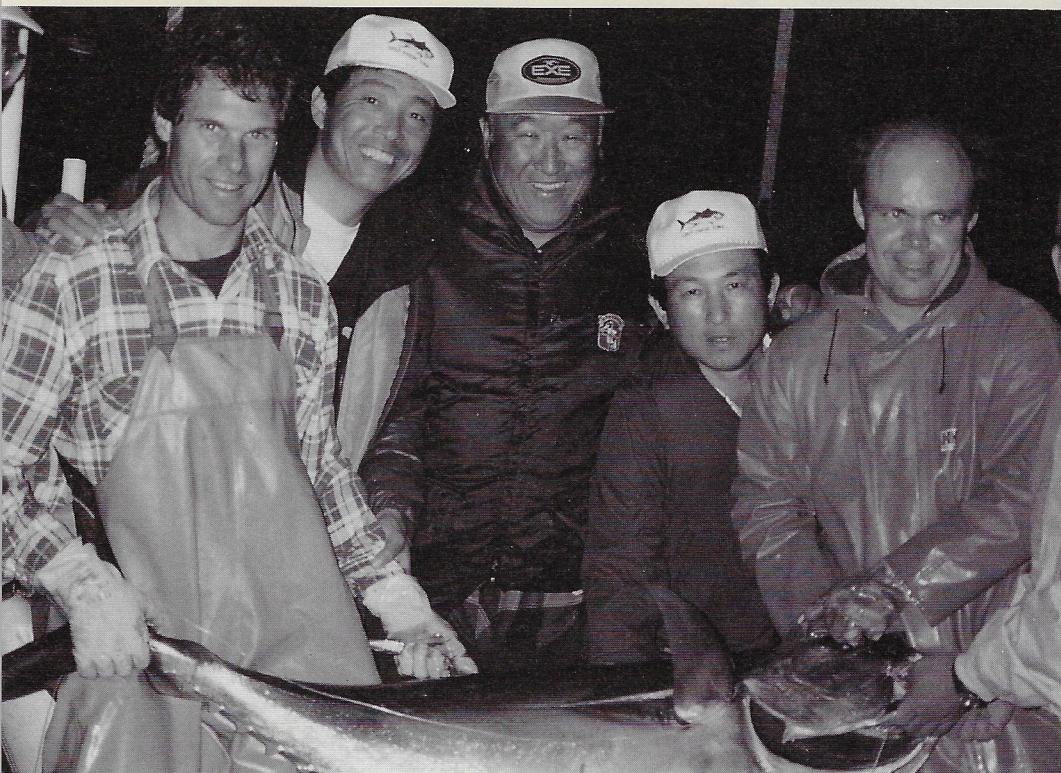


위: 미국 40일순회후 1988년 12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한국교구장들,
기업체장들과 해양교회지도자에게 해양설리의 새로운 출발을 천명하고 배를 만들
것을 지시하는 문목사.

가운데 왼쪽: 1988년 12월 웨스트 팜비치에서 돛새치낚시.

가운데: 1988년 12월 웨스트 팜비치에서 돛새치를 낚는 문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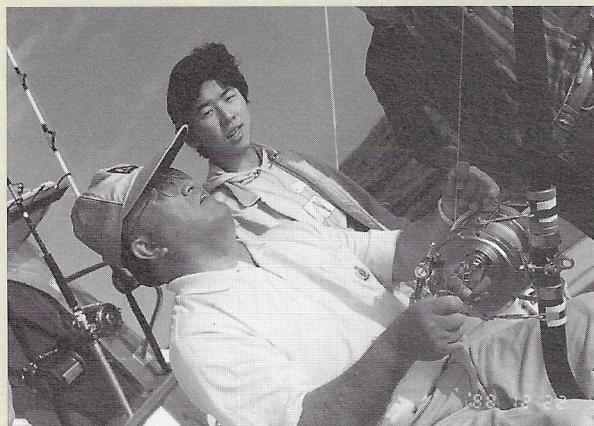
가운데 오른쪽: 웨스트 팜비치 회의에서 천국건설에 기여할 특별십일조현금에 관해
말하고 있는 문목사.



위 왼쪽: 1988년 12월
<선라이즈>에서 잡힌 청새치.
위 오른쪽: 1988년 12월
<선라이즈>에서 선장, 선원,
게스트들에 말씀하는 문목사.
가운데: <선라이즈>에서의 40일
낚시투어.
LA 베니스에서 잡힌 참치.
1988년 12월 LA 바유 라바트르로
귀환.
아래 왼쪽: 1989년 2월 2일 <퍼스트
홈 I>을 타고 있는 문목사.
아래 오른쪽: 바유
라바트르지역에서의 문목사와 교회
멤버들.



8. 하와이



위: 1988년 12월 40일간의 낚시투어중 하와이에서 청새치와 참치낚시를 하고 있다.

왼쪽: 1988년 12월 하와이에서 큰청새치를 낚고 있는 문목사 내외와 자녀들.

가운데 왼쪽: 1988년 12월 하와이에서 청새치를 잡은 문목사와 게스트 및 가족들.

아래: 하와이가 세계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수련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와이섬 주변을 특별히 순회하는 문목사.
맞은편 위: 1991년 하와이에서 낚시하는 문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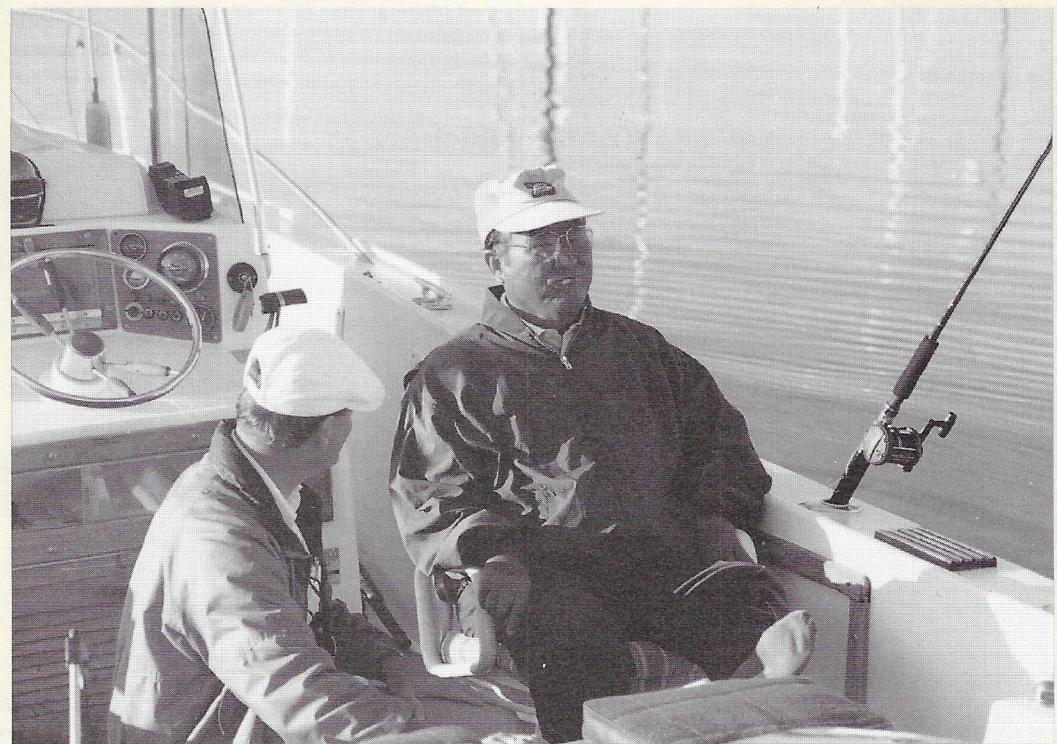


9. 한국



1993년 12월 한국의
제주도에서
5만1천8백2명의
일본여자 멤버
수련기간중 낚시를 하고
있는 문목사.

10. 캐나다



1991년 6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의 낚시모습.

11. 호주



1992년 12월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낚시하고 있다.
왼편은 뉴질랜드에서 가재잡이로 유명한 테스 레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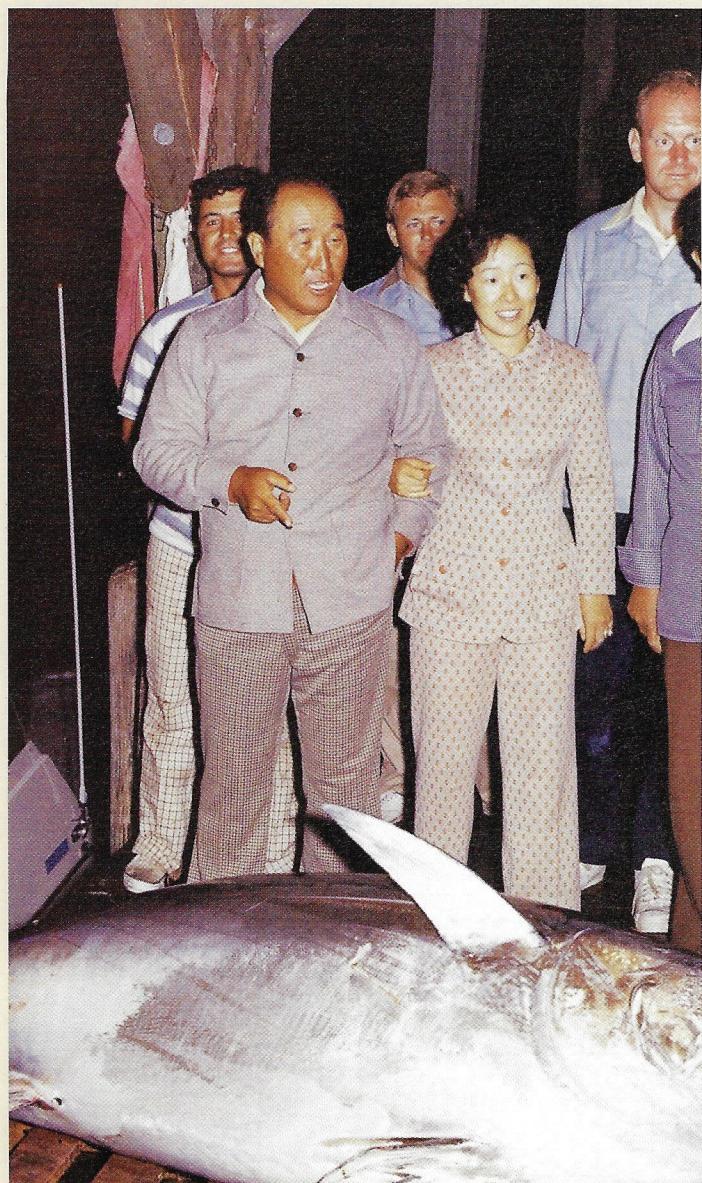
1. 해양교회의 설립

위 원쪽: 1980년 10월 1일, 문목사는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의 모닝가든에 통일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과 여름 투나잡이에 참가한 교회멤버들을 소집했다. 이 집회에서 문목사는 해양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멤버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목사는 청소년들 뿐만아니라 지역대표들을 <원호프>배를 이용하여 수련시키고 교육시킴으로써 해양단체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해양센터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말씀하는 문목사. 사진은 문목사가 미국지도를 보며 해양교회에 대해 상의하고 있는 모습. 24명의 통일신학대학원 졸업생들이 새 센터의 책임자로 임명되고 여름동안 교육받은 60명은 해양센터 개척을 위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

아래 원쪽: 1980년 10월 1일 회의에서 임명된 새로운 해양교회센타 책임자들과 임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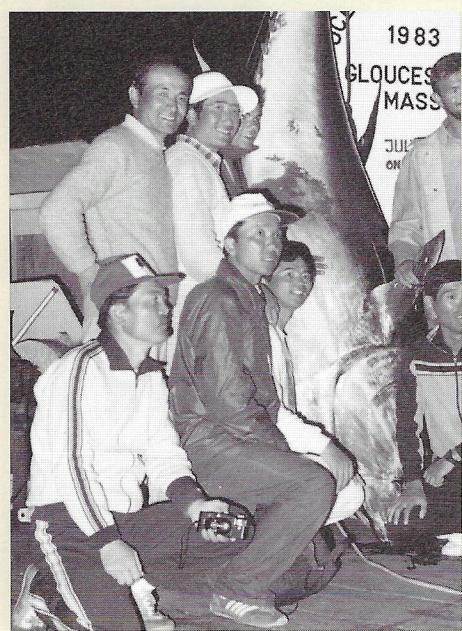
2. 오션 챌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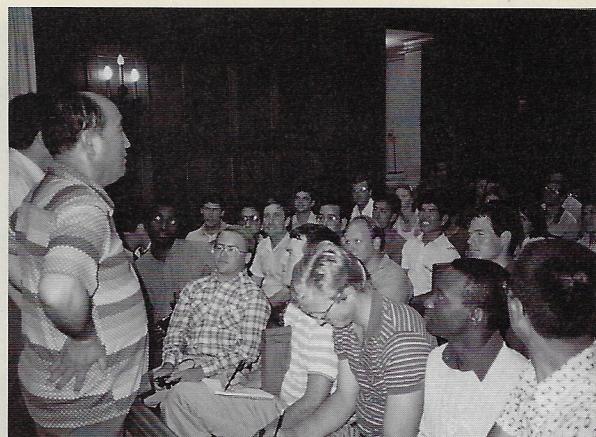


왼쪽: 문목사는 21일동안 투나를 잡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16마리의 투나를 놓친 문목사는 21일후 첫투나를 잡았다. 문목사는 이때 <해양진출전통>을 만들었다. <해양진출전통>은 1980년과 1981년에 창립된 해양교회와 오션 챌렌지 교육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문목사는 손낚시줄 투나잡이기술을 개발해 투나잡이 참피언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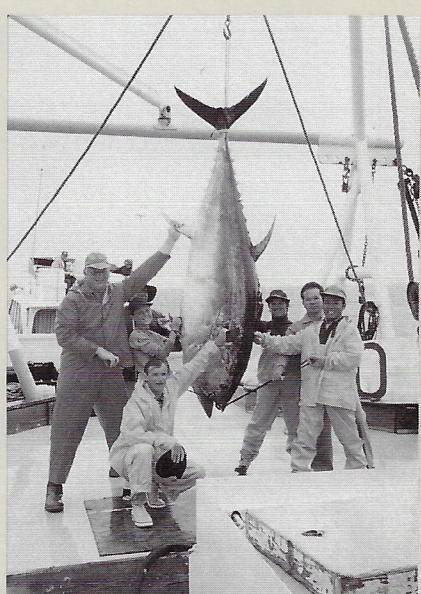
아래 왼쪽: 1983년 글로스터 오션 챌렌지 투나잡이에 참가한 일본식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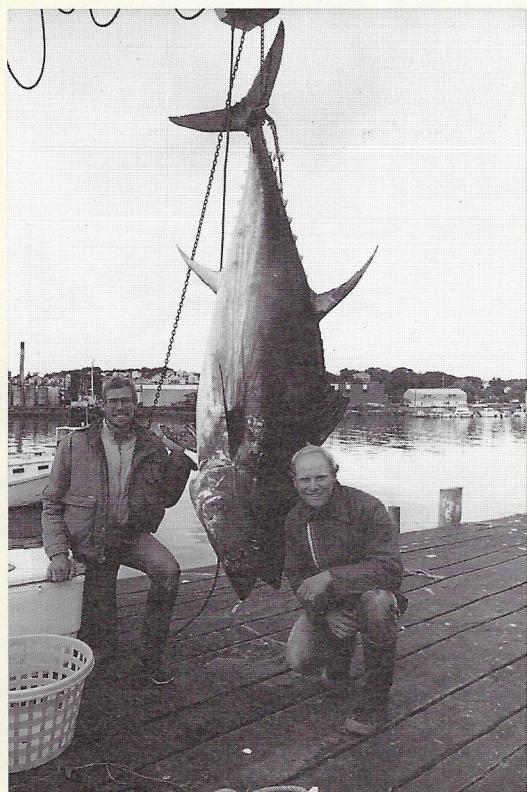
아래 오른쪽: 1981년 첫번째 오션 챌렌지에 참가한 사람들.





위 왼쪽: 1983년 오션 챌렌지 참가자들에게 말씀하는 문목사.
위 오른쪽: 1984년 오션 챌렌지 참가자들에게 말씀하는 문목사.
가운데: 1984년 오션 챌렌지에서 처음 잡힌 물고기와 선장 매티 라니넨.
아래 왼쪽: 1985년 선장 캐런 스미스와 선원들.
아래 오른쪽: 문목사가 1985년 덴버리 교도소에서 나온 후 처음으로 잡은 물고기. 문목사와 선장 알란 호간슨과 <뉴 호프>호 선원 거바르트 피모엘러와 스티브 테일러가 <골든 씨>배에서 잡은 물고기. 또한 가미야마, 마쓰자키, 캐런 스미스, 매릴린 모리스씨.





위 원쪽: 1987년 선장 메뉴얼
리바다씨와 선원 돈 게블씨가 잡은
물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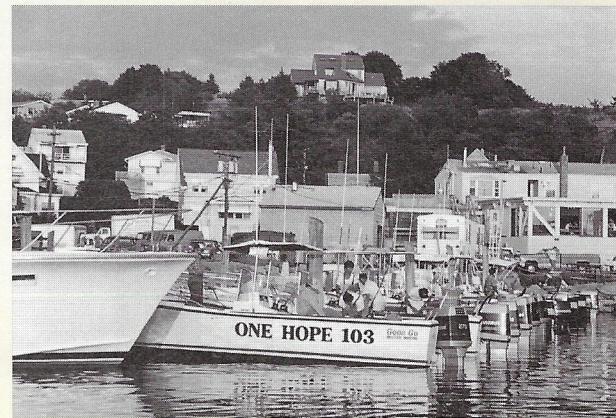


위 오른쪽: 1987년 오션 칠렌지
참가자들에게 말씀하는 문목사를
경청하고 있는 부인 한학자여사와
장남 효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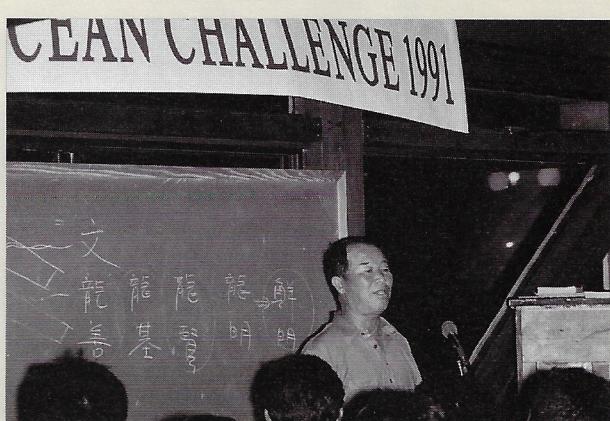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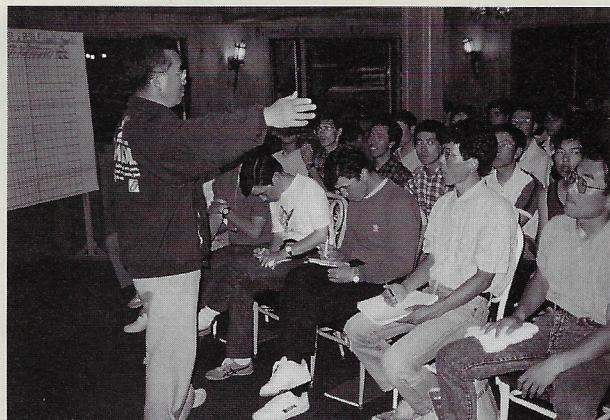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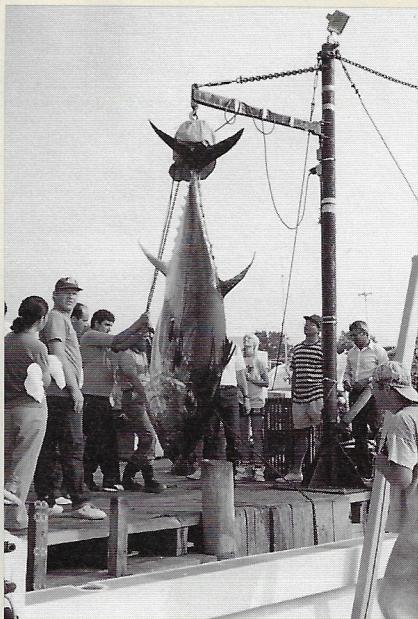
위 가운데오른쪽: 1988년 오션 칠렌지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해양교회책임자 다카시
스기야마씨.

아래 가운데오른쪽: 1988년 오션
칠렌지 프로그램중 <원 호프94>에
실려있는 투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래 오른쪽: 1988년 오션 칠렌지중
글로스터 부두에 있는 <원 호프>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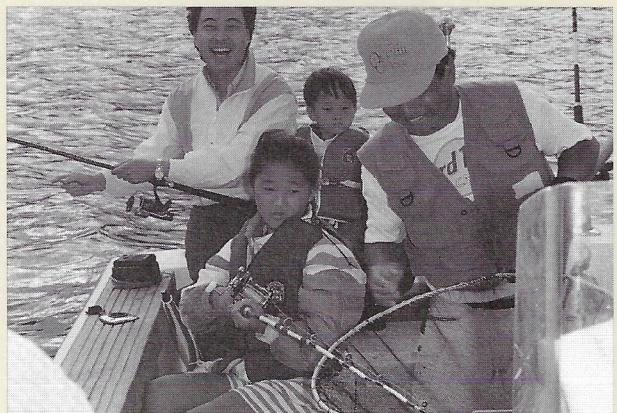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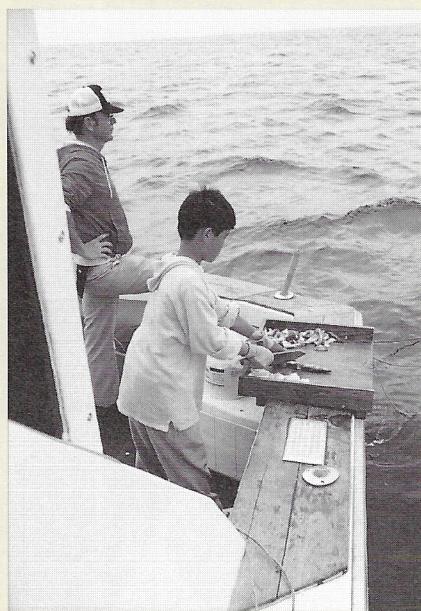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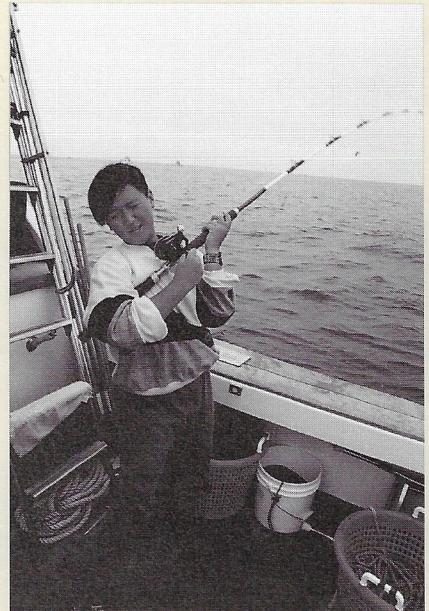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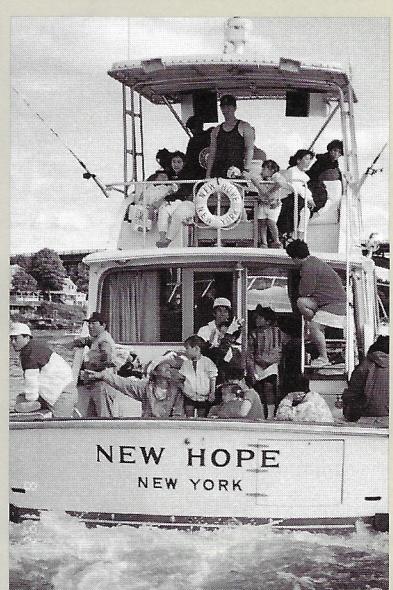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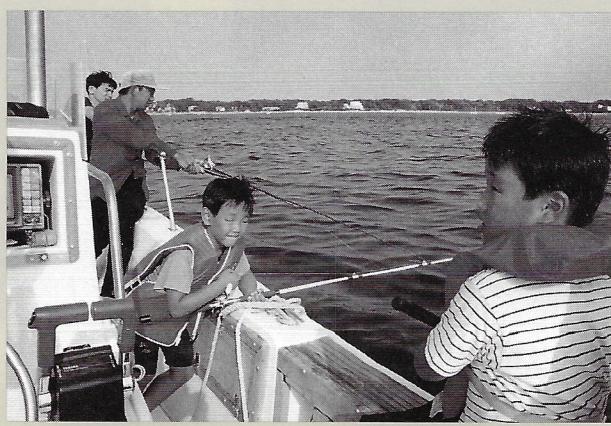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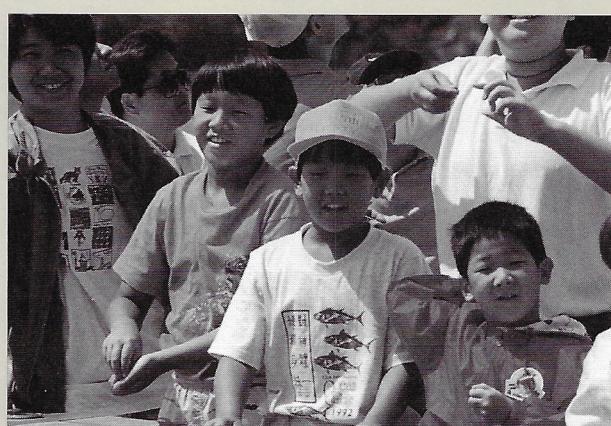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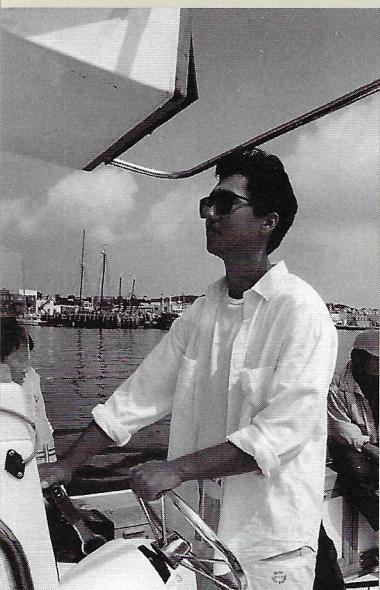
왼쪽: 1987년 글로스터 오션 챌렌지에서
 부두에 도착하는 물고기들.
 오른쪽: 1989년 오션 챌レン지에서
 일본 참가자들이 물고기들과 함께 도착했다.
 가운데 오른쪽: 1990년 오션 챌렌지
 참가자들에게 말씀하는 가미야마목사.
 아래 왼쪽: 1991년 오션 칠렌지 프로그램
 개회식에 참가한 문용선, 문용기, 문용현
 그리고 박상권씨.
 아래 오른쪽: 1991년 오션 챌렌지 프로그램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에게 말씀하는 문용기씨.





위 왼쪽: 1991년 글로스터의
모닝가든에서 오션 챌렌지
참가자들에게 말씀하는 문목사.
40쪽부터 41쪽까지의 사진들: 1991년
082선 오션 챌렌지 참가자들에게 말씀한
다음날, 문목사내외와 자녀들이 오션
챌レン지 참가자들과 함께 해변여행과
넙치잡이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오른쪽: 1991년 오션 칠렌지에 참가한 2세들과 그들이 잡은 물고기 및 선장 하마사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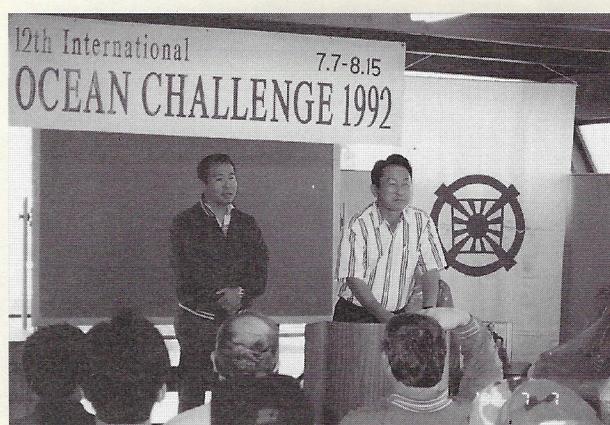
가운데 오른쪽: 1992년 오션 칠렌지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1992년 오션 칠렌지 책임자 최주찬 사장.

가운데 아래왼쪽: 1992년 오션 칠렌지에서 잡힌 물고기들.

가운데 아래오른쪽: 2세선장 마릴사 스크루바트 그리고 그의 선원들이 잡은 물고기.

아래 왼쪽: 2세선장 마릴사 스크루바트가 오션 칠렌지 책임자인 최주찬 사장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다.

아래 오른쪽: 1992년 오션 칠렌지 참가자들.





위: I.O.E.박상권 사장이 1993년
오션챌レン지에 참여한 배들을
성별하고 있다.

왼쪽: 개회식에서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1993년 오션 챌렌지
책임자 박상권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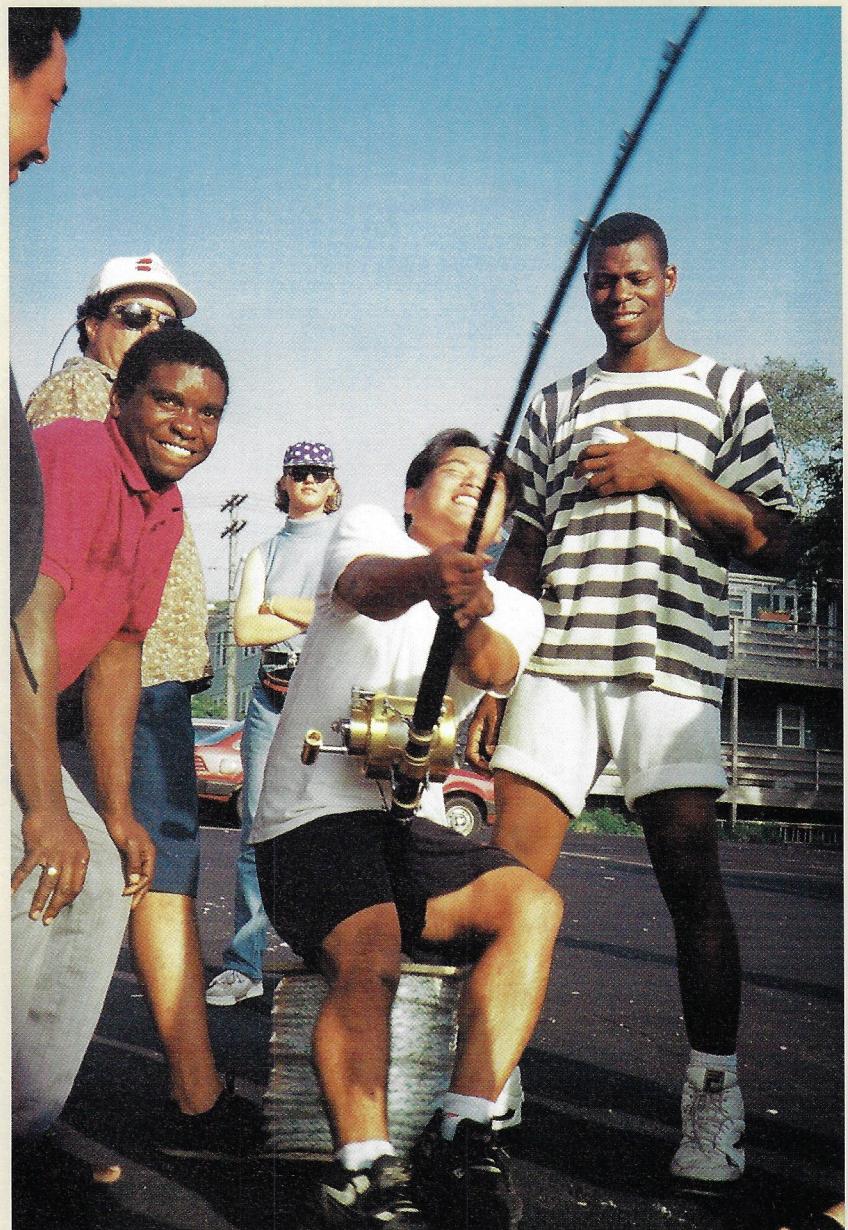
아래 왼쪽: 1993년 오션 챌렌지
개회식에 참가한 일본식구들.

아래 오른쪽: 글로스터시장을 방문한
1993년 오션 챌렌지 대표자들.



오른쪽과 아래 오른쪽: 오션 칠렌지 참가자들이 1993년 오션데이 행사에서 경쟁하고 있다.

아래 왼쪽: 2세 부선장 박진환씨가 1993년 오션 칠렌지에 참가한 2세들을 교육하고 있다.



3. 해양지방활동

- 메인



위: 폴 더간이
공립학교 어린이들에게 해양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
아래: 마지막날에 폴과 테비
더간은 메인 청소년단체,
경찰들과 웨스트브룩에서
낚시를 함.





위: 제2회 세계투나대회 시상식에서의 세계투나대회 회장인 풀 워너씨. 뉴호프이 1등을 했고 통일교인들이 2등과 3등을 차지함. 글로스터지역에 봉사하기 위해 모든 우승자들이 동의하여 상금을 글로스터 어업 종사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시에서는 제의를 거절하고 상금을 받지 않았다. 문목사는 이 상금을 이목적으로 쓰기 위해 보관하였지만 10년 후에 그 상금은 아프리카의 기아를 돋기 위한 기금으로 보내졌다.
오른쪽: 제1회와 2회의 세계투나잡이대회 포스터들.





위 오른쪽: 리버티 하버 마리나는 뉴욕/뉴저지 지역 해양교회활동의 기지. 많은 해양교회배들이 여기에 보관되고 위의 식당의 서비스와 손님접대, 강의를 위한 장소로 사용. 뉴욕의 리버티 마리나의 활동은 마스터 마린의 조선과 월드오션회사의 상업용낚시, 생선판매 그리고 식당업이 포함됨. 사진은 1993년 마리나에서 열린 페스티발과 오픈하우스 아래 아래오른쪽: 1991년 해양교회의 멤버들은 허드슨강에서 청어낚시를 시작했다. 많은 통일교인들과 그의 친구들은 이 역사적인 낚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사진은 허드슨강에서 그물을 준비하고 낚시를 하는 모습.



위 오른쪽: 여성연합지도자들과 후 스퍼진씨, 요코고바야시씨가 허드슨강에서 낚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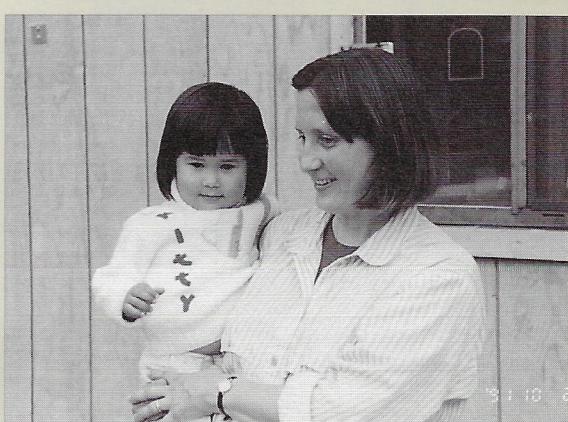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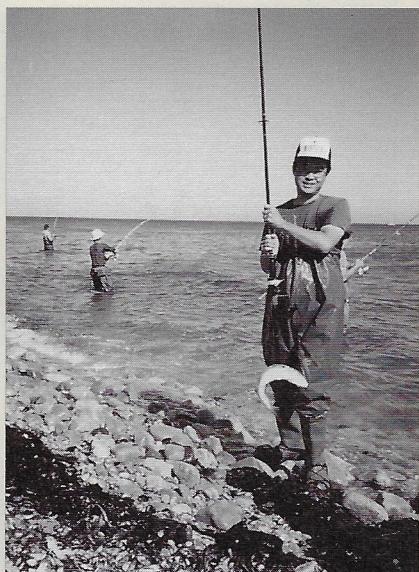
여성연합과 해양교회는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해 준비된 행사활동에 상호협력하다.

아래 오른쪽: 해양교회는 뉴욕시 남동쪽 100마일 지역 허드슨캐년에서 <골든 씨>호를 타고 투나를 잡는 행사를 주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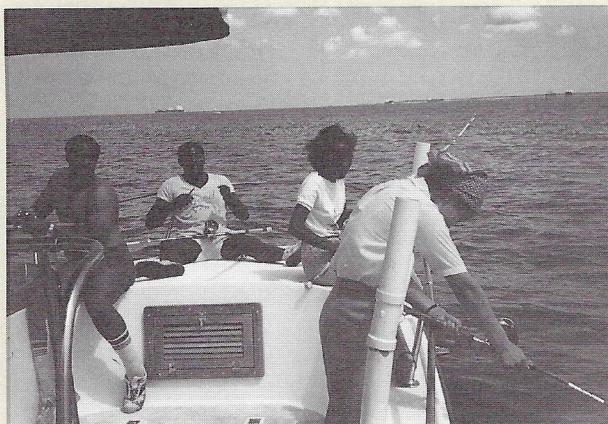
가운데 왼쪽: 몬타포인트에서 게스트들과 낚시하는 몬타해양교회 책임자 스티브 마츠우치씨.

아래 왼쪽: 일본에서 온 게스트들과 <퍼스트 호프 III>를 타고 몬타에서 낚시한 후 마츠우치씨 집에서 바베큐식사.

아래 오른쪽: 캐롤 마츠우치씨와 낚시여행준비를 돕는 그녀의 딸.



— 노폭, 버지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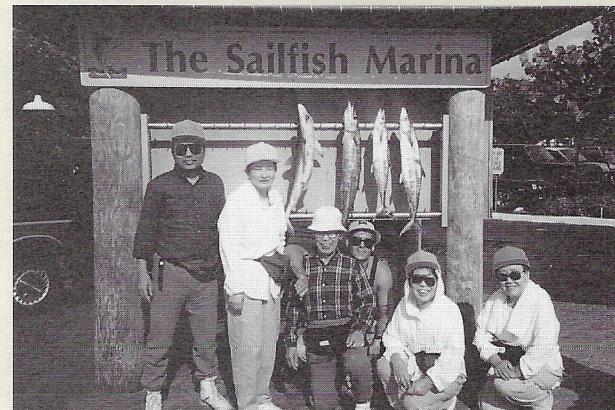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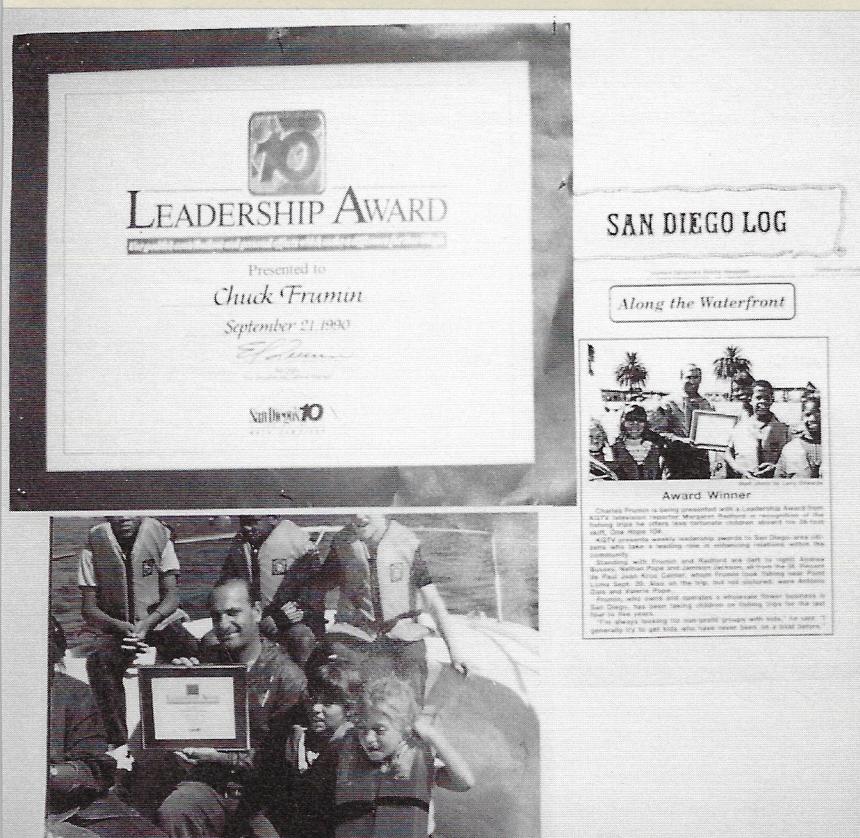
노폭에서 낚시의 흥미를 즐기는 게스트들.

— 웨스트팜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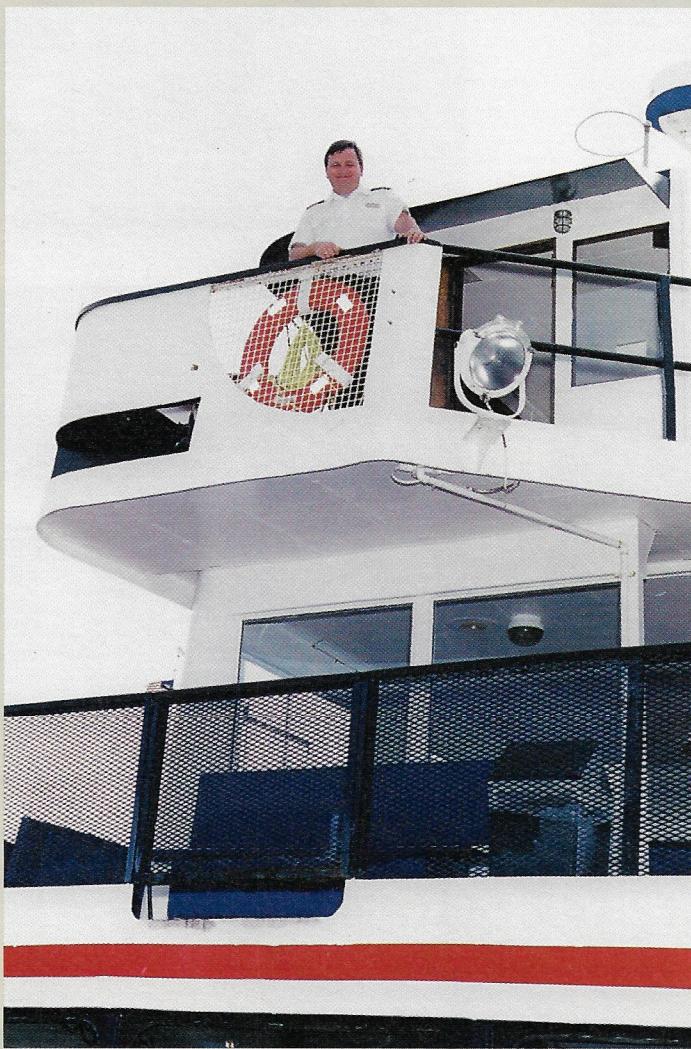
아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해양교회 책임자인 크리스와 다끼이 술즈.

오른쪽과 아래 오른쪽: 일본에서 온
게스트들과 웨스트팜비치에서 낚시를 하는
마이애미 해양교회의 책임자 견서
프레이스테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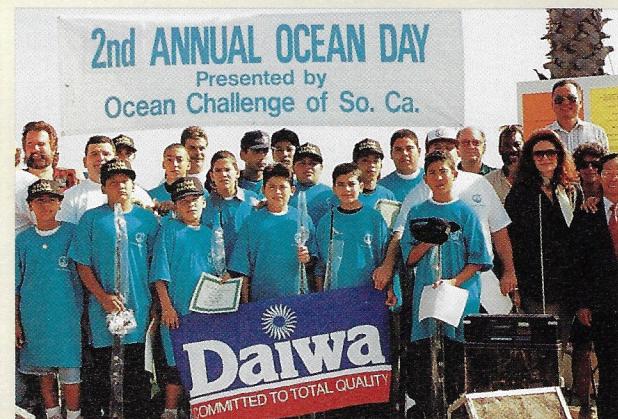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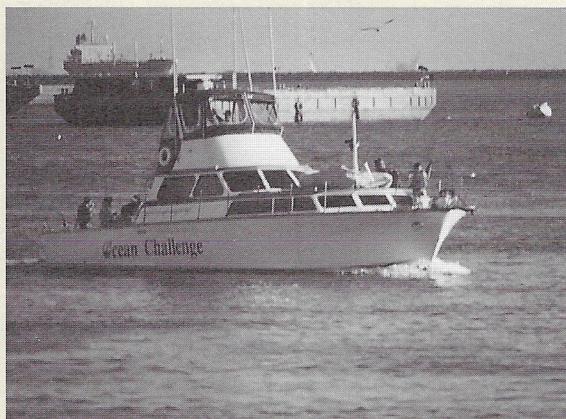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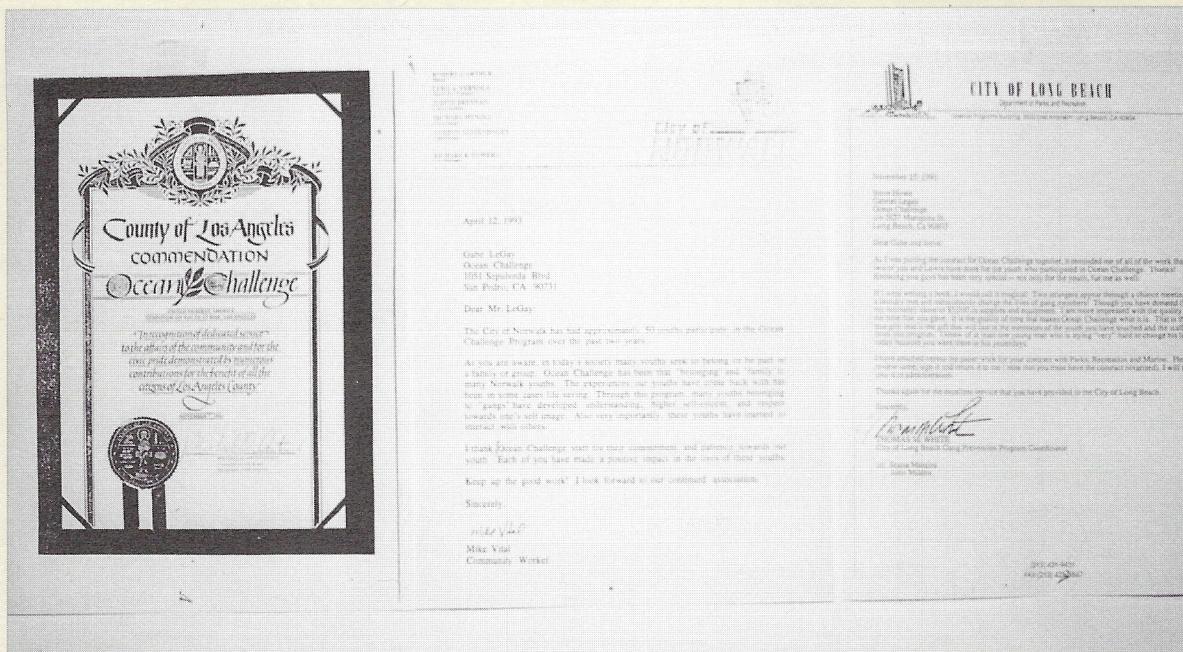




왼쪽: 샌디에고의 청소년들을 위해 일한 해양교회의 책임자 척 프로민씨가 상을 받고 있다.
아래: 최근의 샌디에고센타책임자 테이비드 로씨가 오션 찰렌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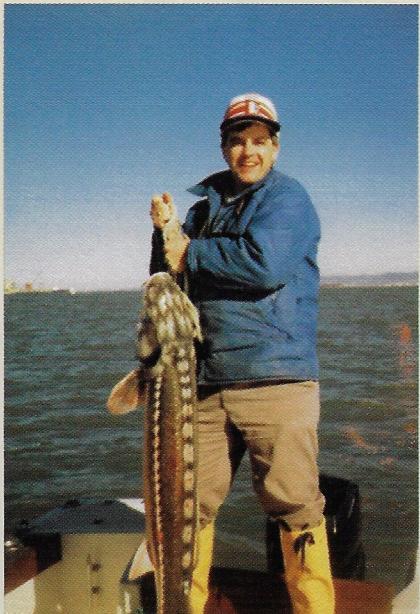
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오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해 일한 해양교회 멤버들이 받은 상장들.

가운데 왼쪽: 오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위하여 구입한 <오션 챌린지>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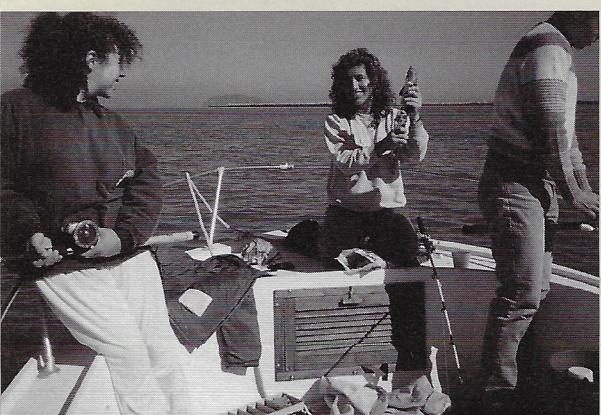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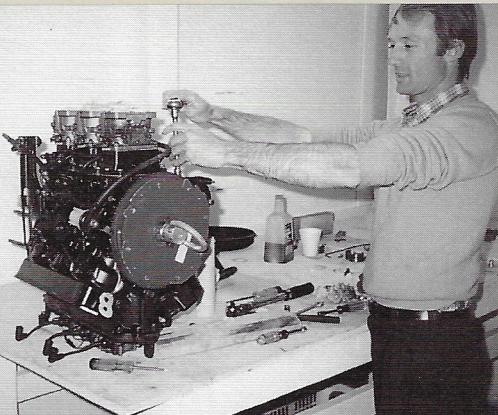
아래 왼쪽: 그들 보호자들과 오션 챌린지 낚시여행의 청소년들.

아래 오른쪽: 캠핑과 낚시가 결합된 오션 챌린지 수련프로그램.

—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왼쪽: 샌프란시스코만에서 잡고 있는
해양교회센타의 책임자 케빈 톰슨씨.
가운데 왼쪽: 덴튼 스미스씨가 배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운데 오른쪽: 1988년 3월 샌프란시스코
해양교회의 멤버들이 조직한 해양전망회의.
아래 왼쪽: 샌프란시스코만에서 낚시여행중인
게스트들.
아래 오른쪽: 기도와 성경봉독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른아침 낚시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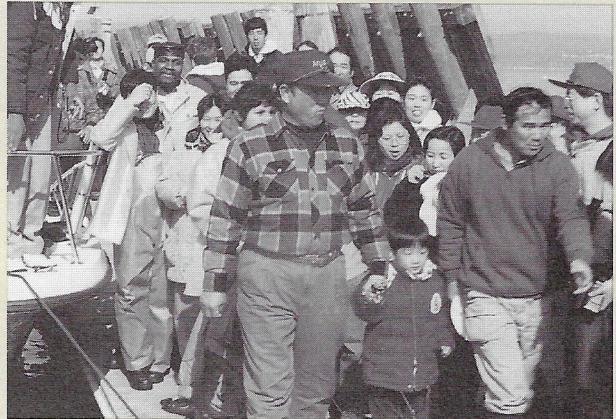
C. 해양교회 - 일본



1. 낚시여행

위 및 아래 오른쪽: 1992년 낚시여행에서 문목사와 함께 줄무늬 도미를 낚고 있다.

가운데 오른쪽: 낚시여행은 바다와 낚시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 해양교회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 낚시여행은 또한 미국 해양교회 센타와 일본 해양교회 사이의 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진은 1993년 낚시여행에서 문목사와 함께 허드슨강에서 줄무늬 도미를 낚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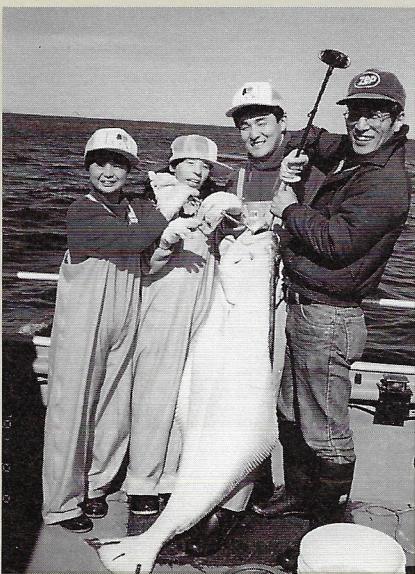
위 왼쪽: 1992년 문목사가 줄무늬 도미를 낚고 있다.

위 오른쪽과 아래 오른쪽: 1991년 뉴욕주 몬탁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

위 중앙: 1992년 3월 웨스트팜비치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

아래 중앙과 아래 왼쪽: 1991년 8월 알래스카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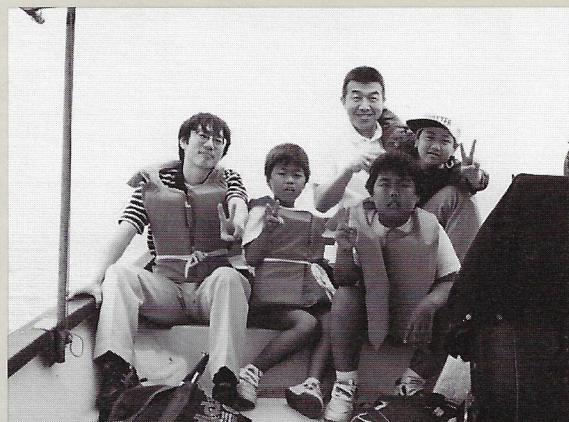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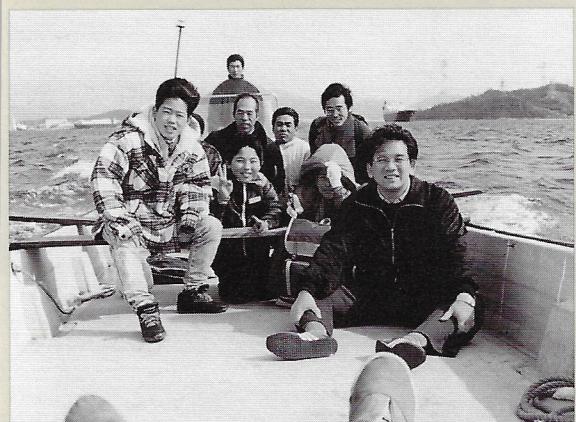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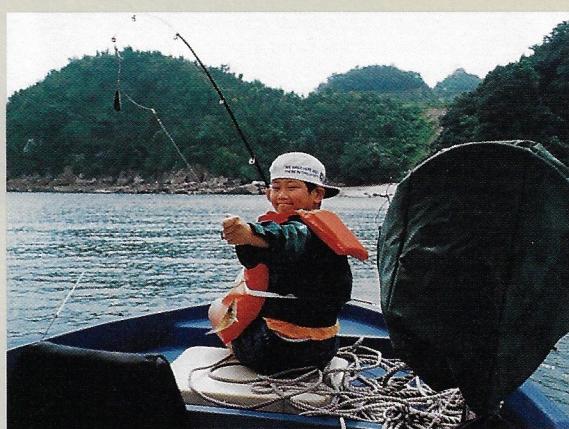
아래 중앙: 1992년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



2. 해양낚시회



맞은편 위: 제32차 낚시여행에 참여한
해양낚시회원과 게스트들.
맞은편 아래: 도쿄 해양교회의 월례
낚시여행에 참가한 게스트들.
이 페이지: 일본 해양교회와 지역학교들들이
후원한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일본
남부지역 학교 어린이들.
아래 오른쪽: 제32차 낚시여행.



D. 해양사업

1. 조선

a. 한국에서의 초창기 조선



초창기 한국에서 문목사는 배와 조선이 얼마나 해양섭리에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배는 인간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기초적인 것이고 모든 해양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다. 조선기술은 바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기본이 되었고 문목사는 멤버들이 이 기술을 배워서 세계에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셨다. 사진은 1962년 인천에서의 천성호의 진수식.



위: 1977년 앤러배마에서
조선소용으로 대지를 매입하다.
나중에 마스터 마린 조선소를
인수해 운영에 들어가다. 이곳에서
철선을 만들고 수리하다. 사진은
마스터 마린의 경영 스탠들.
가운데 위: 조선소를 방문한 문목사.
가운데 아래와 아래: 사진은
앨러배마의 마스터 마린 조선소와
부두에서 수리되고 있는 배들.

C. 미시시피



National Fisherman
MAY 1988

Avoiding Collisions at Sea
Sorting Out the Bycatch Problem • How Best to Manage Sharks?
Largest U.S. Fiberglass Trawler • Build-It-Yourself Gillnet R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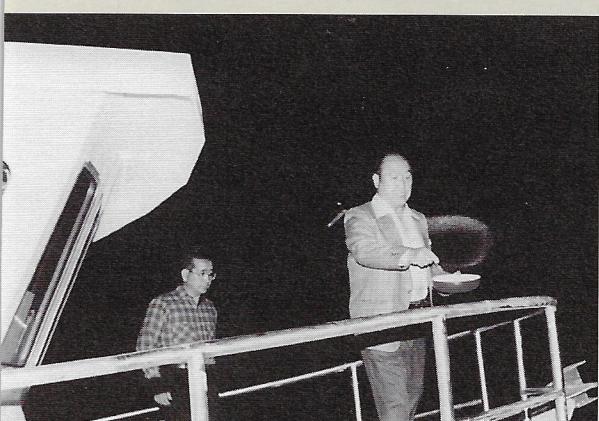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fisherman wearing a cap and safety gear, working on the deck of a boat. He appears to be handling equipment or preparing gear. The water is choppy in the background.

BOATS AND GEAR
100' fiberglass trawler for Alaska fisheries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large white fishing trawler docked at a pier. The boat has a tall mast and a complex rigging system. The name "ORE OCEAN" is visible on the side.

Futura Lukota EPPI® Safety First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close-up of a boat's hull, possibly made of a composite material. The surface is smooth and reflective.



맞은편 위: 거대한 화이버글래스 배를 건조한
미시시피 조선소의 전경.

맞은편 가운데 왼쪽: 미시시피에서 건조중인 <씨 호프 III>.

맞은편 가운데 오른쪽: 1987년 미시시피에서 건조된
85피트 화이버글래스 저인망배 <원 오션 I>. 이
배는 지금 알래스카에서 조업중이다.

맞은편 아래 왼쪽과 오른쪽: 1989년 미시시피에서
건조된 100피트 화이버글래스 저인망배인 <원 오션
I>에 대한 <내셔널 피셔맨> 잡지의 기사.

위: 52피트 배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문목사와
멤버들.

아래: 새로 제작된 52피트 화이버글래스배 <퍼스트
홈 I>을 성별하는 문목사.

D. 뉴욕 / 뉴저지

오른쪽: 1979년과 1980년 문목사는 해양교회와
오션 챌린지 프로그램을 위하여 <원 흐프>배
구입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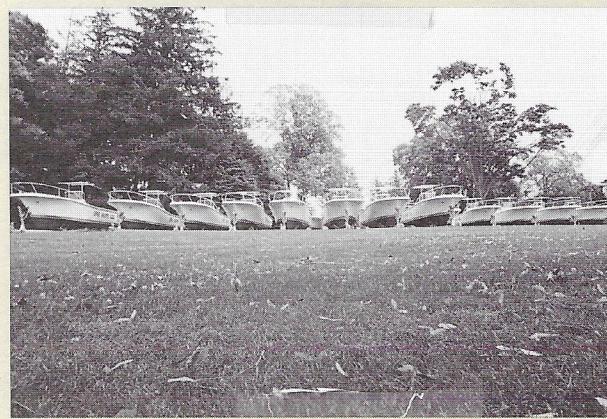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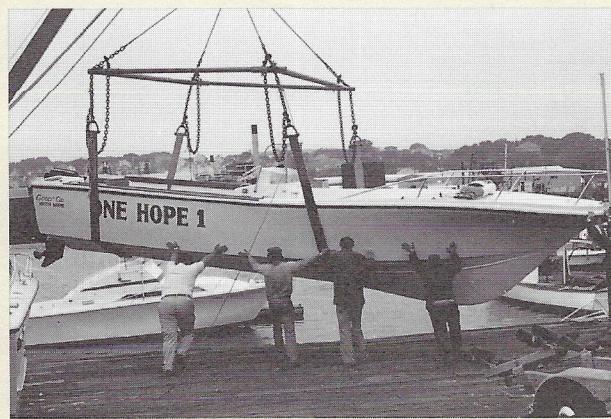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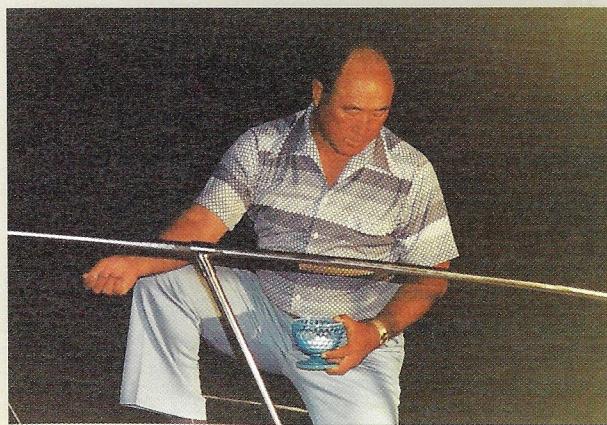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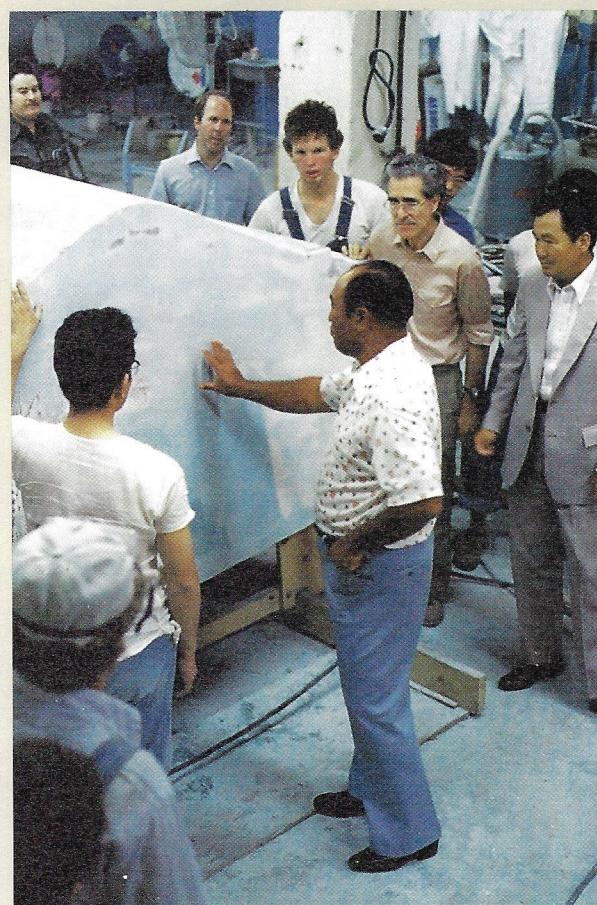
<원 흐프>배는 뉴욕에 소재한 마스터 마린에
의해 건조되었다. 사진은 뉴욕주 퀸즈에
있는 이스트 센 빌딩의 공장을 방문, 제조된
배의 플러그를 점검하고 있는 문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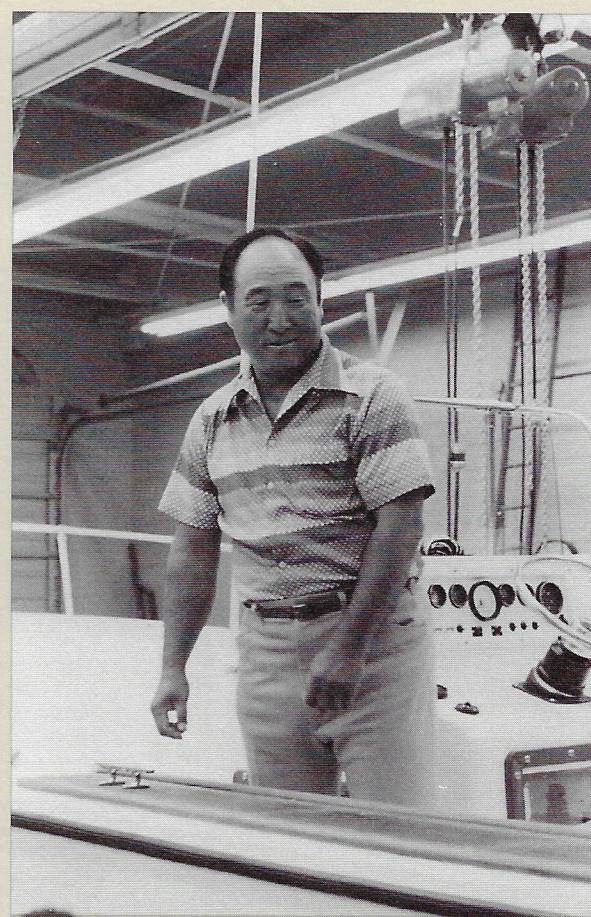
가운데 왼쪽: 첫번째로 만들어진 <원 흐프
I>이 퀸즈에 있는 공장을 출발하는 모습.

가운데 오른쪽: <원 흐프 I>을 성별하는
문목사.

아래 왼쪽: 1980년 글로스터에서 진수되어
지는 <원 흐프 I>.

아래 오른쪽: 1980년과 1981년 벨베디어에
전시된 신형 <원 흐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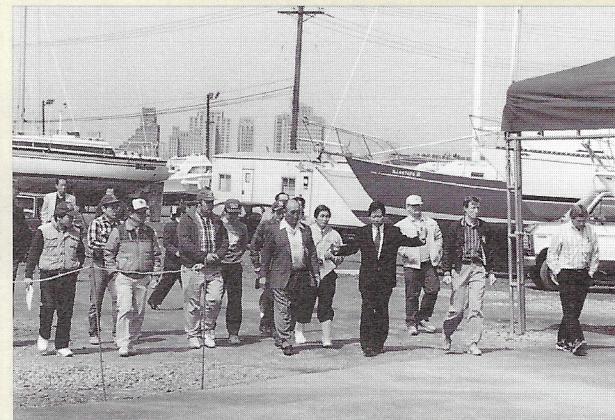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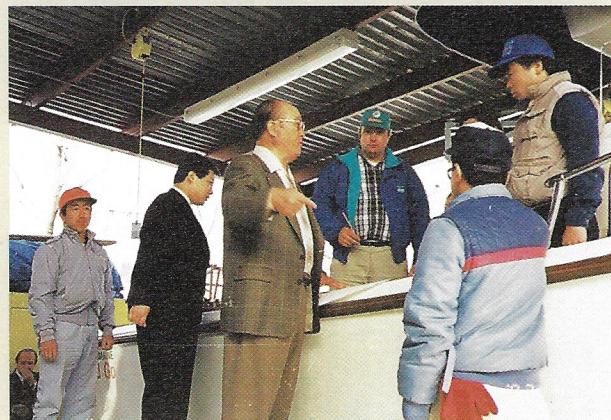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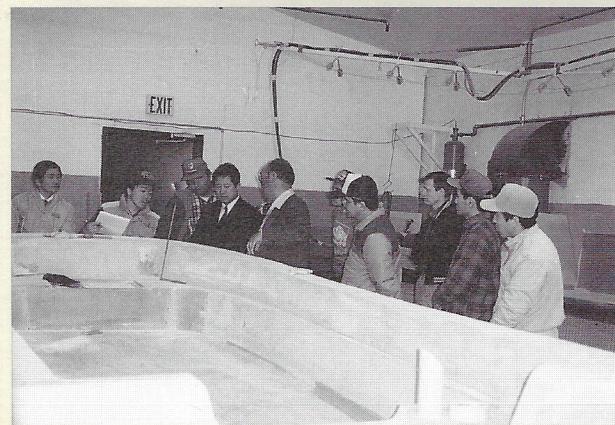
왼쪽: 신형 <원 호프>배들의 플리그와 함께한 마스터 마린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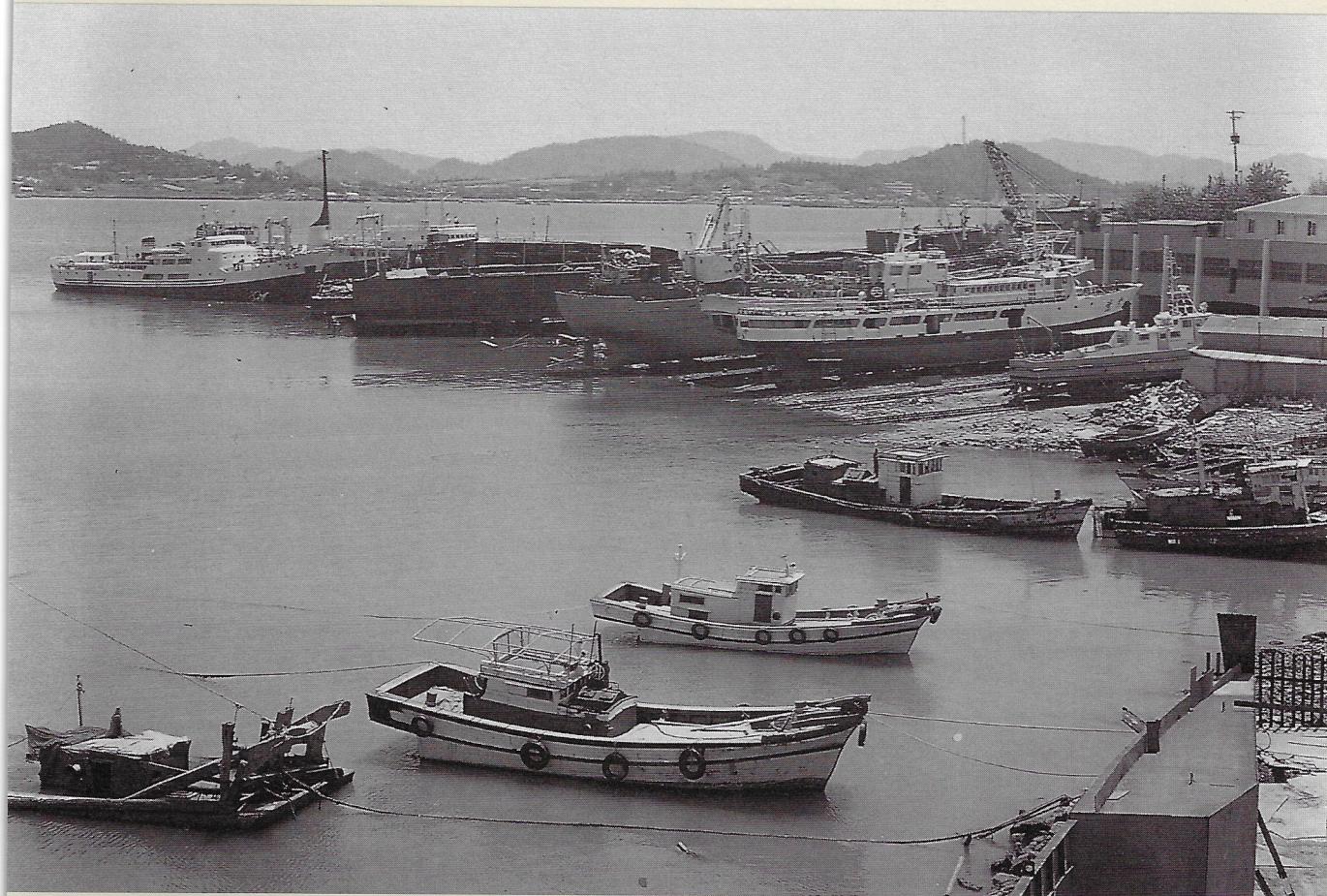
오른쪽: 최근에 완성된 <원 호프>배를 점검하는 문목사.
아래: <씨 호프 I>을 전조중인 조선공들.





위 왼쪽: 1983년 뉴욕에서 제조된 48피트짜리 <씨 호프 I>. 위 오른쪽, 오른쪽, 아래 가운데 왼쪽과 오른쪽: 1990년 11월에 뉴저지주 리버티 하버 마리나로 옮겨간 후 배를 건조하기 시작한 마스터 마린. 현재 16피트, 20피트, 24피트와 28피트 배를 건조한다. 사진은 배 만드는 작업장을 방문한 목사. 아래 왼쪽: 마스터 마린이 최근에 건조한 28피트짜리 배를 점검하는 목사. 아래 오른쪽: 코디악에서 해양교회를 위해 16피트짜리 배를 인수하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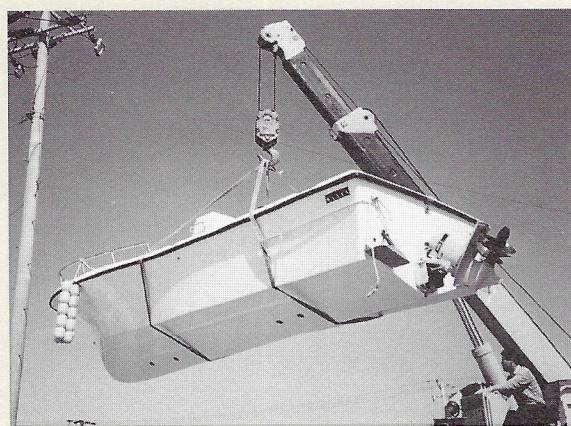


위: 한국 목포시에서 1988년에 시작된 일홍조선공업. 조선소에서 큰 철선과 유람선을 건조한다. 1994년에 <월 호프>배 건조에 이용하기 위해 뉴욕의 마스터 마린과 일홍이 합작으로 일홍의 화이버글래스부를 확장함. 사진은 목포에 있는 조선소.

왼쪽: 일홍의 화이버글래스 제작소.

오른쪽: 건조중의 24피트짜리 <월 호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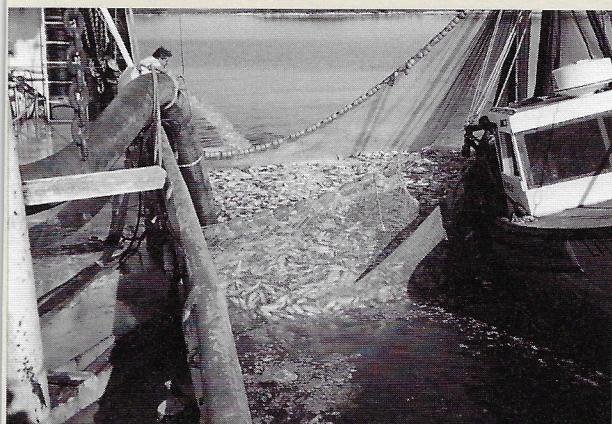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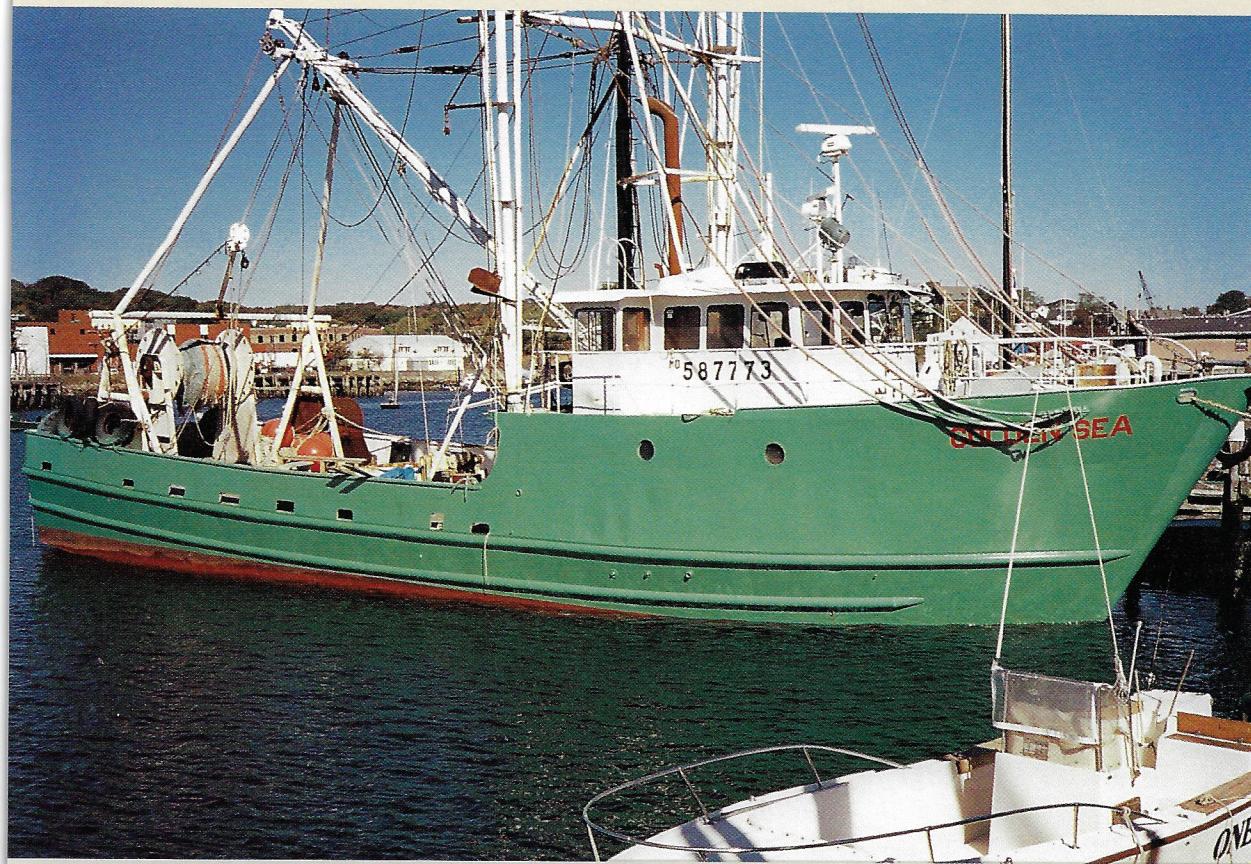


위: 일홍에서 건조중인 3000톤이 넘는 배.

왼쪽: 일홍에서 진수되는 24피트짜리 <원호프>배.

오른쪽: 일홍의 김사장과 사또씨와 직원들.

2. 해양 낚시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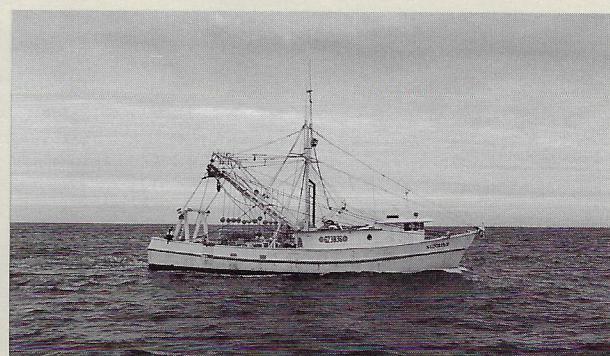


위: 1979년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한 <골든 씨>. 현재 모항은 글로스터이며, 러시아와의 청어공동어로 작업에 사용되고 있다.

가운데: 대형 건착망에서 <골든 씨>로 옮겨지는 청어들. 이 청어들은 러시아공업용배로 옮겨진 후 생선음식과 생선기름으로 가공된다.

아래 오른쪽: 1979년에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썬라이즈>. 썬라이즈 수산회사 소속으로, 멕시코 만새우잡이에 사용되고 있다.

아래 왼쪽: 1979년에 건조된 <그린 호프>. 현재 알라스카 고기잡이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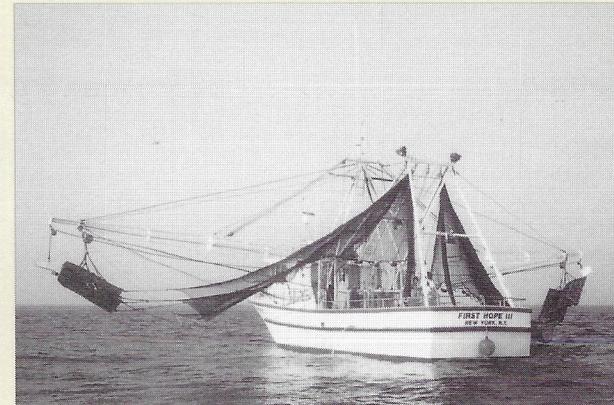
위 왼쪽: 1982년에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오션 호프 I>과 <오션 호프 III>. 현재 알래스카에서 조업중이며, 알래스카 퍼시픽 펄공장부두의 인터내셔널 씨푸드에 있다.

위 오른쪽: 1987년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화이버글래스 저인망배인 <원 오션 I>. 현재 알래스카 고기잡이에 참여하고 있다.

가운데 위 오른쪽: 1989년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주락어선인 <퍼스트 호프 I>. 뉴저지주 저지시에 있는 리버티 하버 마리나 주변에서 낚시하고 있다. 이 사진은 브릿지포트 대학생들의 스포츠 낚시장면.

가운데 아래 오른쪽: 1990년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주락어선 <퍼스트 호프 II>. 이 배 또한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서 낚시중이다. 이 사진은 <퍼스트 호프 I>과 같이 브릿지포트 대학생들과 함께.

아래 오른쪽: 1990년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저인망배인 <퍼스트 호프 III>. 현재 리버티 하버 마리나 주변에서 강바닥 생선과 오징어를 잡고 있다. 활어 프로젝트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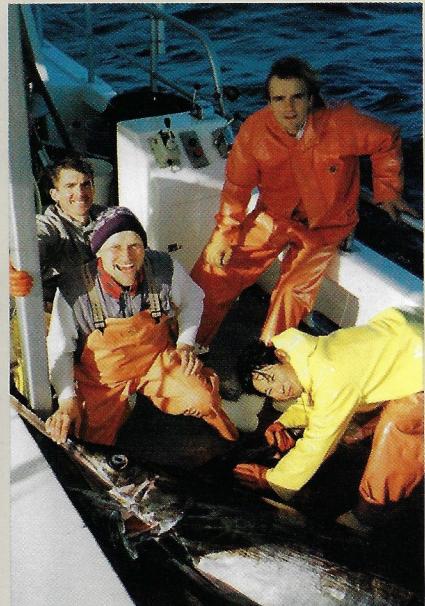
위: 1991년에 구입한
저장 저인망배 <오션
피스 I>. 현재 알라스카
그라운드 수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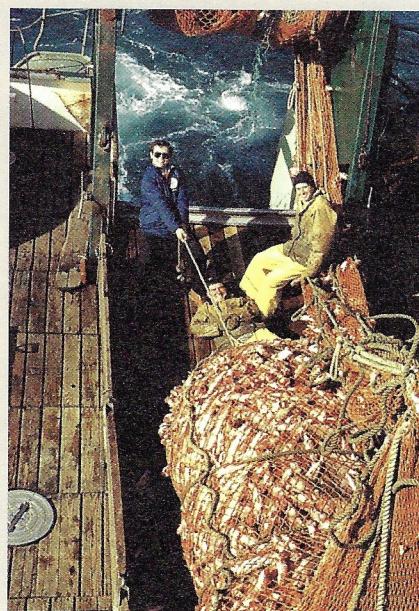
가운데 왼쪽: 1991년 씨애틀에서
<오션 피스 I>의 리본을 자르는
문목사.

가운데 오른쪽: <퍼스트 호프
II>선상에서 황새치를 잡은 마뉴엘
리바 선장과 선원들.

아래 왼쪽: 퀘서핀만에서 <씨 호프
I> 거하드 피모엘러 선장과 선원들이
게를 잡고 있다.

아래 오른쪽: 1983년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씨 호프 I>. 베지니아주
노폭 주변에서 낚시하고 있다.





위 왼쪽: 1986년 마스터 마린이 건조한 <씨 호프 III>. 멕시코 만의 새우잡이를 위한 배이다.

위 오른쪽: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1986년 구입한 <린다 수>와 첫 선장인 벌린 알리버. 현재 매인주 성게잡이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 글로스터에서 개일른 부록이 구입한 <글로스터 호프>. 성게잡이, 덜 피쉬와 바다밑생선 잡이에 참여하고 있다.

위 오른쪽: 1986년 독일에서 구입한 <유로파>. 현재 북해와 북대서양의 그라운드 피쉬잡이에 참여하고 있다.



위: 그라운드 생선그물을 비우고 있는
<유로파> 선원들. 그린랜드 근처 스팟즈버근
남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다.
가운데: <유로파>의 선원들과 가족들.
아래 왼쪽: <크리스틴 더블유>가 잡은 생선들.





아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가공되기 직전의 성게를
가득싣은 성게잡이 배.
위 왼쪽: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가공된 성게들. 포장되어
수송완료된 모습.
위 오른쪽: 성게자루를 끌어 올리고
있는 성게 다이버.
가운데 오른쪽: 일홍주식회사의 양
사장. 일홍은 한국에 어선을
갖고 있는 수산업과 가공업회사이며,
<오션 퍼스 I>와 협작하고 있다.



오른쪽: 1981년 8월 남아메리카 수리남에 보내진 <매캔트라> 선단. 박 상권사장이 책임맡고 있는 80척이 넘게 성장한 이 선단은 세계 제일의 새우잡이 선단으로서 남미 여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다.



3. 전세보트

위: 글로스터에 정박중인 <씨 호프 I>. 현재
마크 망가모리가 선장이며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서 전세보트로 사용하고 있다.

오른쪽: 알래스카 코디악 근처에서 낚시중인
전세보트 <유-래스칼>. 선장은 크리스
휘아라.

아래 오른쪽:<유-래스칼>선상에서 일본에서
온 게스트들과 그들이 잡은 생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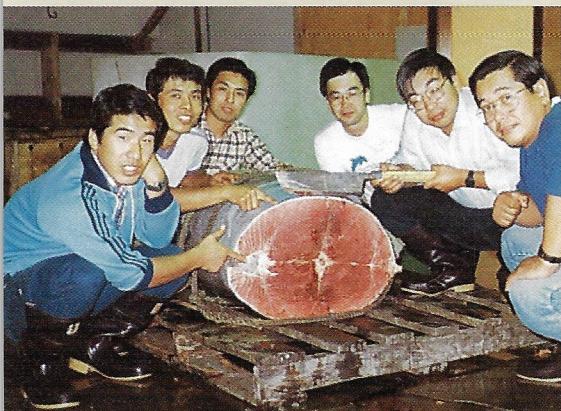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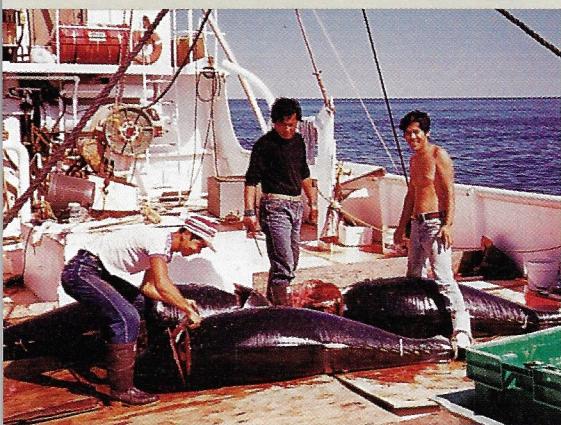
위: 하와이섬 코나근처에서 낚시중인
전세보트 <레네게이드>. 선장은 척 후러민.
아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낚시중인
전세보트 <오션 글로리>.



위: 유니월드는 초창기 부터
미국에서 투나를 사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주력함. 1975년에
찍은 사진.

왼쪽: 1987년 투나 구입용 배인
<골든 씨>.

아래: 1988년 글로스터에서 품질과
가격 결정을 위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위 원쪽: 1988년 글로스터에서 투나의 무게를 달고 있다.

위 오른쪽: 1992년 글로스터의 인터내셔널 랩스터회사에서 포장되어 운송될 준비가 완료된 투나들.

가운데: 스페인의 투나 양식장. 해안에서 파운드그물에 잡힌 투나들은 양식되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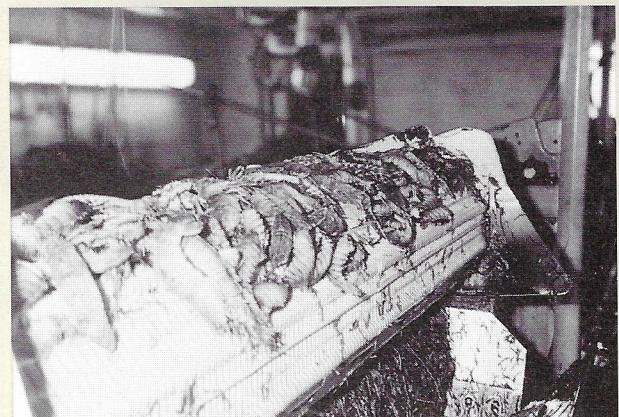
위: 투나사업에 관련된 해피월드직원들이 한학자여사와 자녀들의 세계순회강연시 공연하는 모습.

아래 왼쪽: 양식장에서 옮겨지기 직전에 묶여있는 투나.

아래 오른쪽: 스페인의 양식장에서 옮겨지는 투나.



5. 가공업



I.O.E. (앨러배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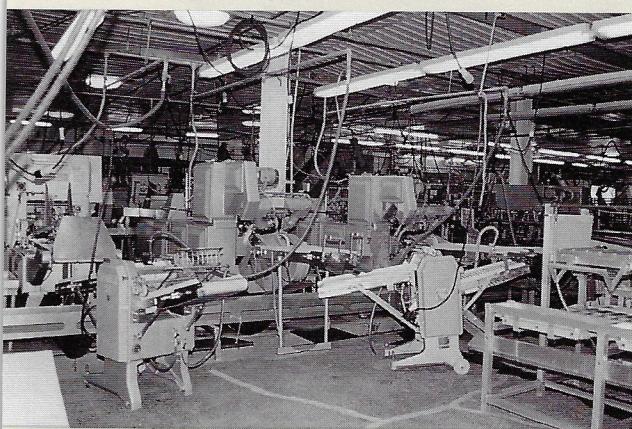
위: 앨러배마의 바우 라바트르에 있는 I.O.E. 새우가공공장.
가운데 왼쪽: 앨러배마의 I.O.E공장에서 가공중인 롤슈럽프.



I.O.E. (알래스카)



위 원쪽과 가운데 위 오른쪽: 알래스카 코디악에 있는 국제수산물 가공공장.
가운데 아래 왼쪽: 코디악에 있는 ISA공장의 생선가공기계.
아래: 코디악의 ISA에서 최근에 개발된 가공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생선가루자루들.
위 오른쪽: 1989년 코디악의 ISA공장을 방문한 문목사내외.





카니미

위: 보스톤 수산물 전시회에 선보인 샤이닝 오션 카니미.
아래: 샤이닝 오션회사의 직원들.



해피 월드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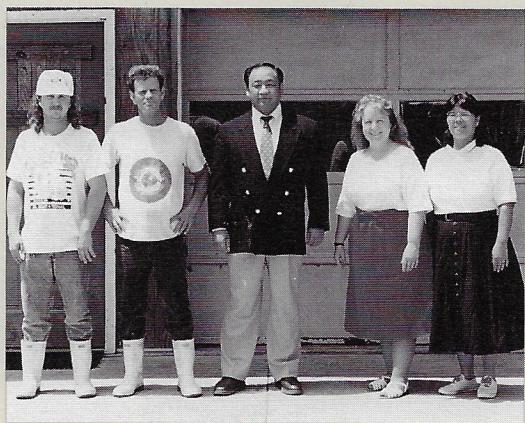
위 왼쪽: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있는 해피 월드 아메리카 수산물회사의 본사.

위 오른쪽: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의 해피 월드 아메리카의 인터내셔널 랩스터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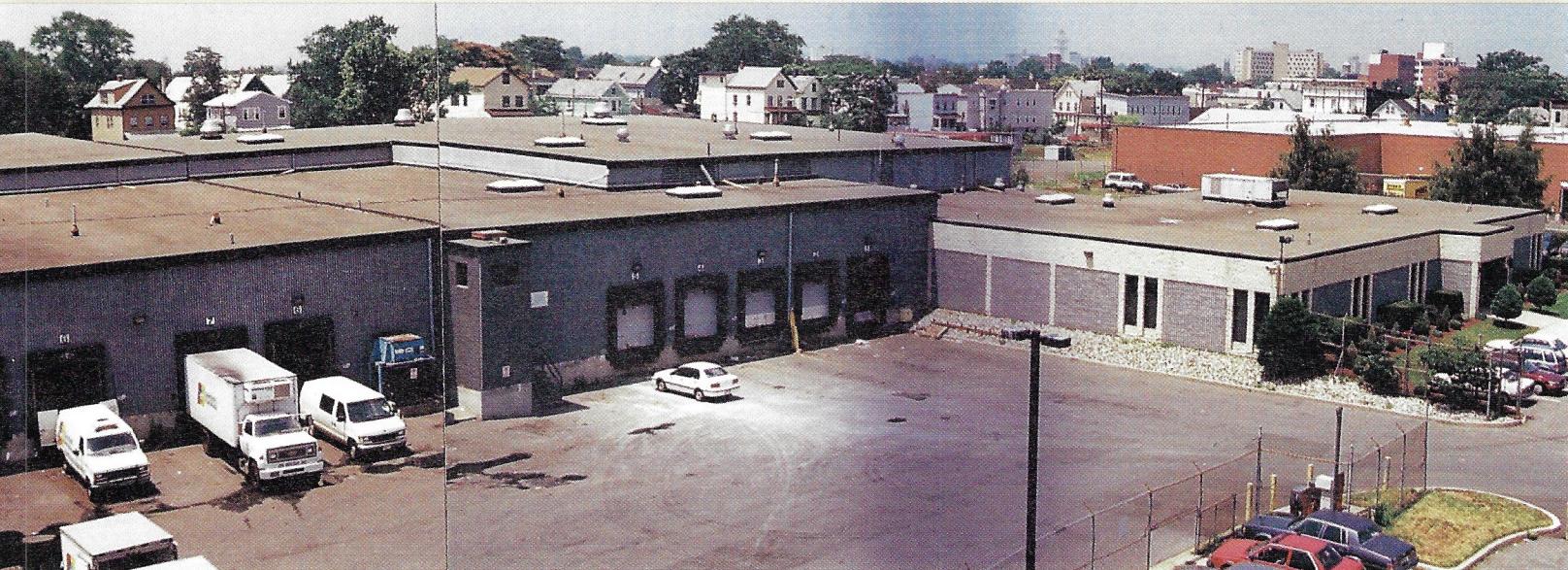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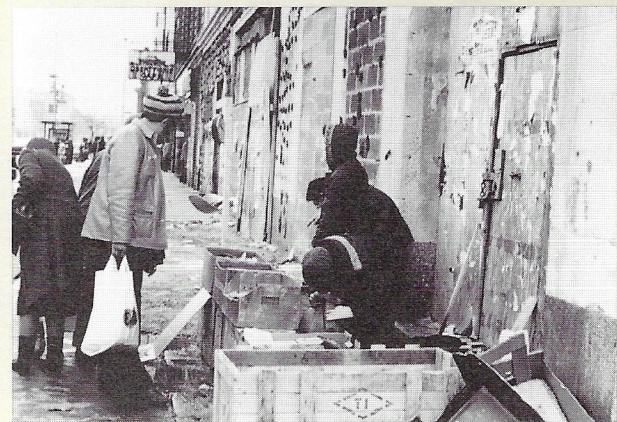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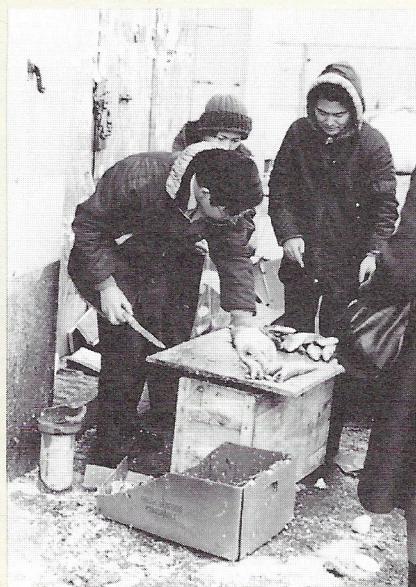
위 가운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해피 월드 아메리카회사.

아래 가운데: LA 베니스의 해피 월드 아메리카 베니스 수산물도매회사.

아래: 캘리포니아 LA의 해피 월드 아메리카회사.



6. 도매업



뉴욕 피쉬 하우스

위 왼쪽과 오른쪽: 보잘것없는 시작 - 1976년 겨울 뉴욕시 할렘거리에서 생선을 판매하던 모습. 이것이 뉴욕 피쉬 하우스의 시작이다.

가운데: 1994년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의 뉴욕 피쉬 하우스.
아래: 1994년 뉴욕 피쉬 하우스의 직원들.





국내에서의 도매업

위: 보스톤의 럭키 네 씨 푸드.
가운데 위 원쪽: 위싱턴디씨의 썬 씨 푸드.
가운데 아래 원쪽: 마이애미의
유나이티드 씨 엔터프라이즈.
가운데 아래 오른쪽: 시카고의 레인보우
피쉬 하우스.
아래 원쪽: LA의 유니월드.
아래 오른쪽: 샌프란시스코의 야마토
푸드회사



위: 씨애틀의 썬라이즈 씨애틀
가운데: 하와이의 덴수케.
아래: 하와이의 덴수케의 직원들





소매업 /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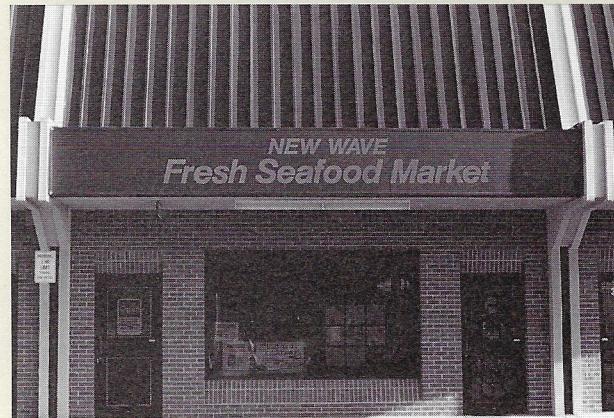
아래, 가운데 왼쪽과 아래 왼쪽:

시카고의 씨랜치 I

아래 오른쪽: 시카고의 씨랜치 II



위: 시카고의 씨랜치 II
 가운데 위 왼쪽: 매릴랜드주에 있는 뉴웨이브
 씨푸드마켓.
 가운데 아래 왼쪽: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있는
 씨푸드재팬.
 가운데 아래 오른쪽과 아래 왼쪽: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는 씨푸트재팬.
 아래 오른쪽: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노블피쉬.





레스토랑

위 왼쪽: 뉴욕주 뉴욕시에 있는
기이로이 하나 레스토랑.

위 오른쪽: 조지아주 애틀란타시에
있는 어거스트 문 레스토랑.

가운데 왼쪽: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시이로이하나 레스토랑.

가운데 오른쪽: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노하나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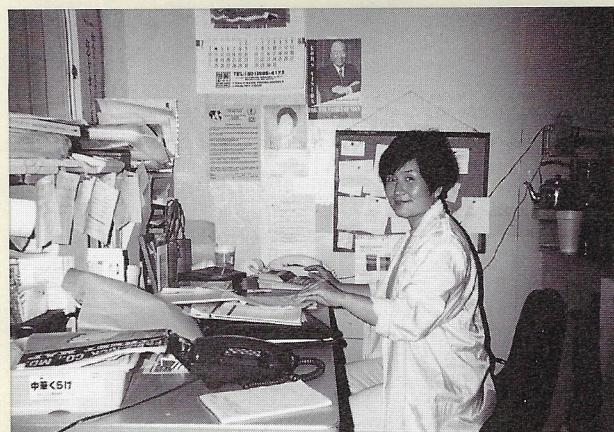
아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케노하나.

홈 딜리버리

위: 위싱턴디씨에 있는 뉴 웨이브 홈 딜리버리.

가운데 위 오른쪽: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씨푸드 홈 딜리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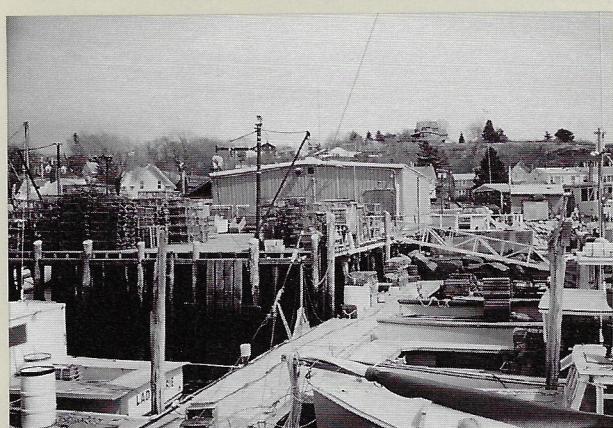
가운데 아래 오른쪽: 위싱턴주 씨애틀에 있는 홈 딜리버리.



트럭운반판매

아래 왼쪽과 오른쪽: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씨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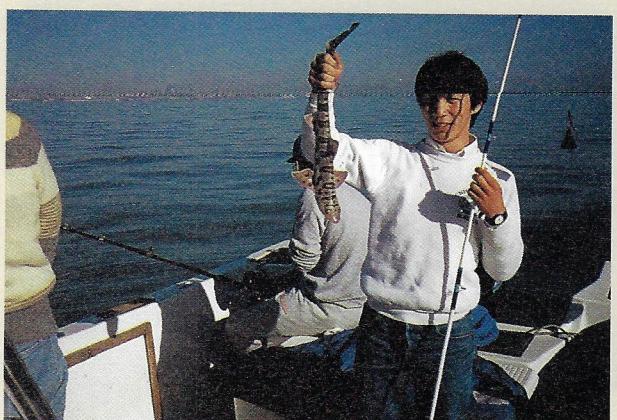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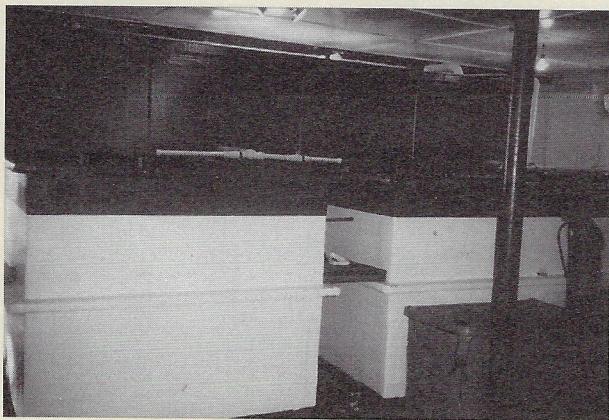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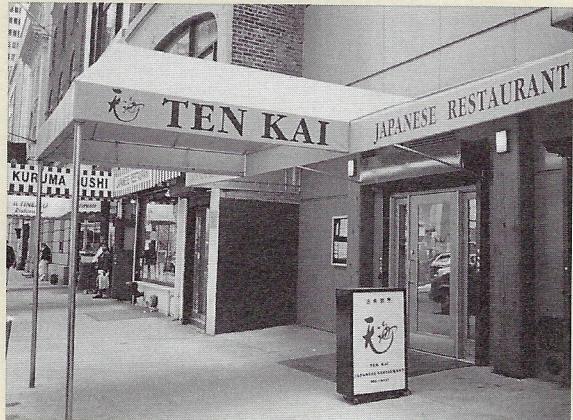
위: 캐나다 그랜드 마나섬에 있는 가재 양식장.
왼쪽: 1979년 첫번째 활어 선택품인 가재를 다른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에 있는 인터내셔널
랩스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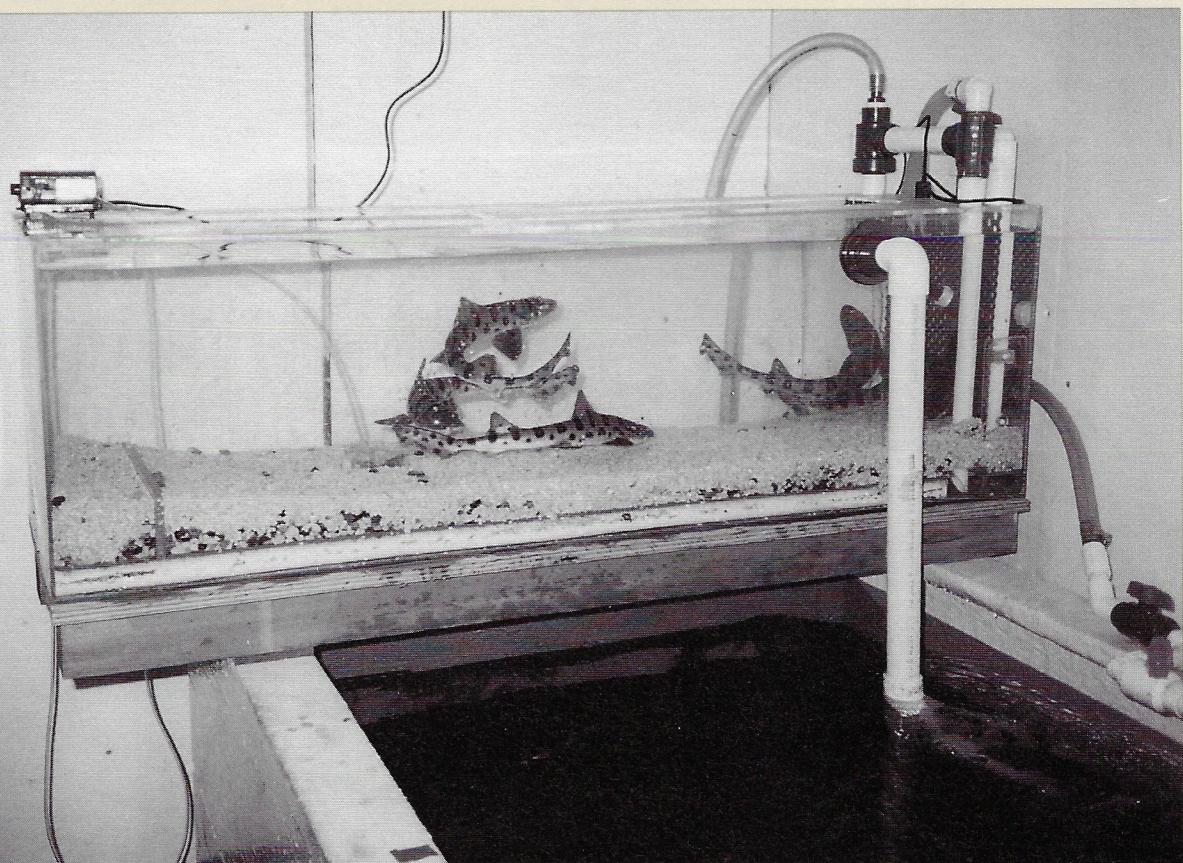
아래 왼쪽: 매사추세츠주 글로스터에 있는
인터내셔널 랩스터사의 탱크들.

아래 오른쪽: 리버티 하버 마리나 활어
프로젝트의 하나인 <퍼스트 호프 III>의 활어
탱크를 들러보는 문목사.



위 오른쪽: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 있는
 센가이 활어용 트럭.
 가운데 위 오른쪽: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
 있는 활어 보관용 탱크보트.
 가운데 아래 왼쪽: 맨하탄에 있는 덴카이
 활어 레스토랑. 활어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일하는 덴카이, 센가이, 그리고
 <퍼스트 호프 III>.
 가운데 아래 오른쪽: 덴카이 활어
 레스토랑의 활어 보관용 탱크.
 아래 왼쪽: 뉴욕주 몬탁에 있는 타키오
 회사의 활어 보관용 탱크들.
 아래 오른쪽: 살아있는 채로 학교나
 수족관에 매매되는 래퍼드 상어를
 잡고 있는 모습.





위: 운송되기 전의 테퍼드 상어를 보관하는 탱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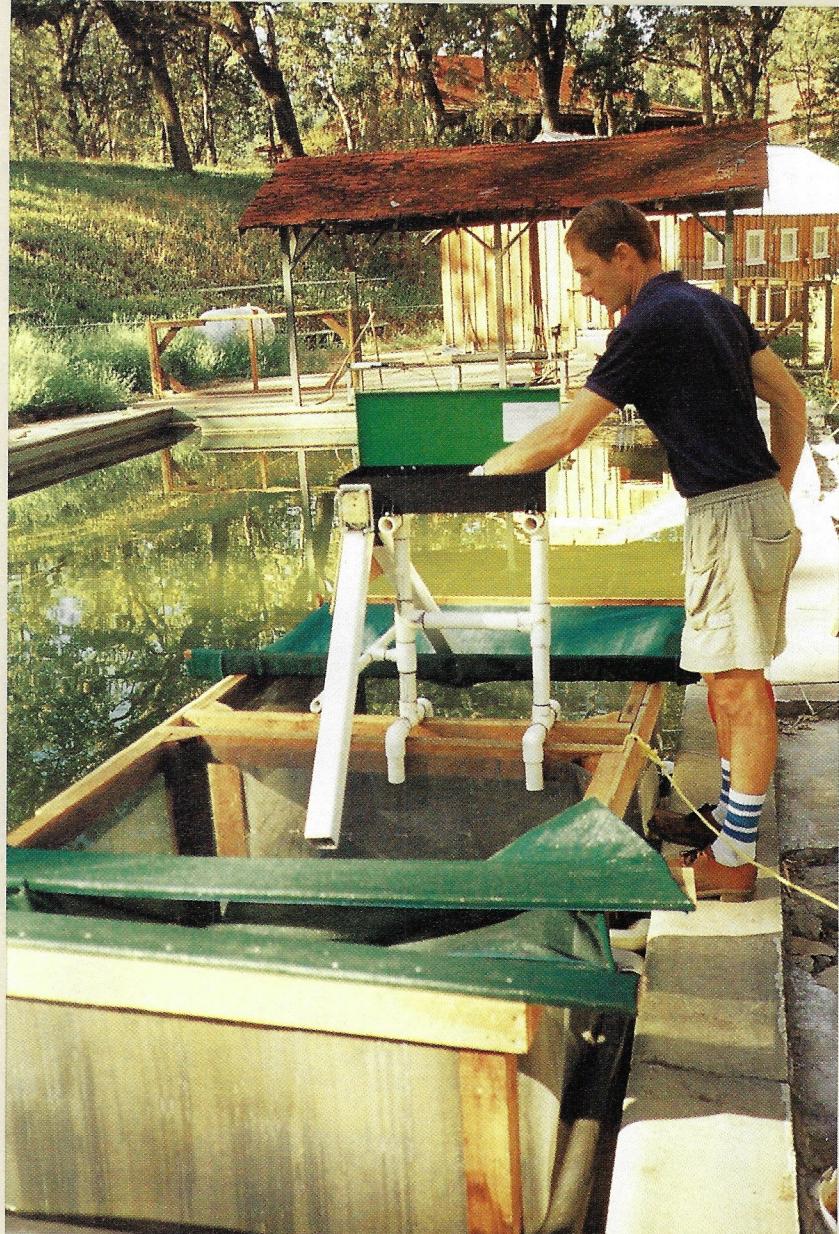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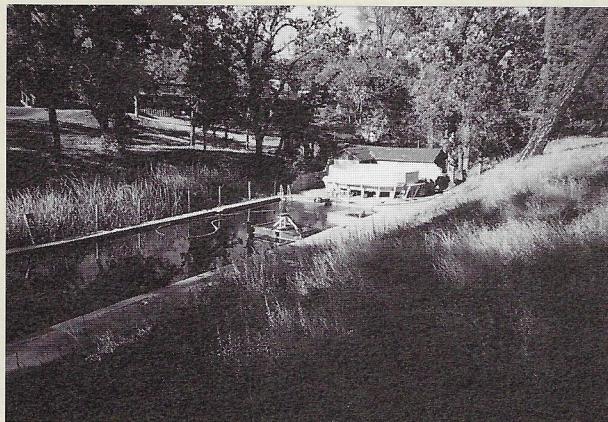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에 있는 활어 탱크제조회사인 유니버설 마린 인더스트리스.

아래: 샌프란시스코의 유니버설 마린 인더스트리스의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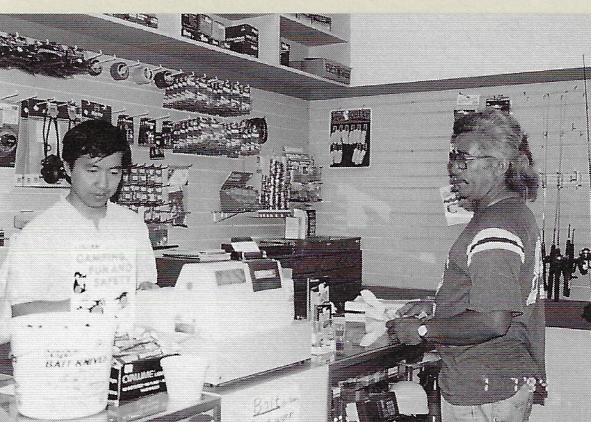


9. 양식업

위와 가운데 왼쪽:
캘리포니아주 에트나
스프링스에 있는 메기양식장.
아래 왼쪽과 오른쪽: 한국의
제주도에 있는 송어 양식장.



10. 미끼, 낚시도구와 수리



위: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 있는
낚시도구 판매점을
방문한 문목사.
이 페이지의 다른
사진들: 리버티 하버
마리나에 있는 엠&엠
미끼와 낚시도구
판매점.

IV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주

1. 우리의 자랑, 1977년 6월 5일.
2. 우리의 이상가정(2부), 1983년 6월 26일.
3. 해양교회기반, 1980년 6월 10일 - 벨베디어.
4. 누가 해양을 상속받을것인가? 1983년 7월 3일 - 글로스터.
5. 해양교회와 미국, 1982년 8월 28일 - 프로빈스타운.
6. 누가 해양을 상속받을것인가? 1983년 7월 3일 - 글로스터.
7. 지도자회의, 1983년 6월 27일.
8. 투나낚시와 뜻길, 1984년 7월 5일 - 모닝가든.
9. 재출발합시다, 1984년 2월 8일 - 세계선교본부.
10. 통일교회 23주년기념, 1977년 5월 1일.
11. 우리가 왜 투나낚시를 가는가? 1983년 8월 31일 - 글로스터.
12. 우리가 왜 투나낚시를 가는가? 1983년 8월 31일 - 글로스터.
13. 해양교회와 미국, 1982년 8월 28일 - 프로빈스타운.
14. 투나의 생태, 1980년 7월 31일 - 벨베디어.
15. 김원필목사와의 인터뷰중에서 - 1990년.

